

# 祭場으로서 山城 研究

## : 鎮山을 中心으로

鄭義道\*

山不在高有仙則名 水不在深有龍則靈

산은 높아서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서 이름이 되는 것이요  
물은 깊어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용이 살아서 신령한 것이다

第十三 陋室銘 劉禹錫 <古文觀止><sup>1)</sup>

### <목 차>

- I. 서
- II. 제장이 확인되는 산성
- III. 문헌검토
- IV. 결론

\* 韓國文物研究院

1) <古文觀止>는 淸나라 康熙 34년(1695) 吳楚材와 그의 조카인 吳調侯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로 편집한 고문(古文 - 古典散文) 선집본이다. 이 책이 출간되던 당시에는 초급 교본 정도로 인식되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春秋戰國時代부터 明나라 末까지 2백 22편의 작품을 사상성과 예술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선집과, 중국 산문사를 관통하는 통사적 선집, 단문 위주로 초학자들에게 편리하도록 한 보편적인 선집, 그리고 경전문과 역사문 및 駢文을 배제시키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문체를 고려한 학술적 선집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3백 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비록 제자백가 문장이 빠지고, 金·元代 작품을 선집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중국의 역대 어느 선집본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劉禹錫은 中唐의 詩人(772~842)으로 자는 夢得이고 하북성 출신이다. 당 덕종 11년(795) 博學宏詞科에 급제하여 杜佑의 막료가 되었다. 감찰어사로 영전되어 王叔文, 柳宗元 등과 함께 정치 개혁을 기도하였으나 805년 왕숙문이 실각하자, 朗州司馬로 좌천되었다. 10년 후 다시 중앙으로 소환되었다가 그 때 지은 시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다시 連州刺史로 전직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太子賓客을 최후로 생애를 마쳤다. 농민의 생활감정을 노래한 <竹枝詞>를 펴냈고 만년에는 白樂天和 교류하면서 시문의 도에 정진하였다. 문집에 <劉夢得文集> 30권과 <外集> 10권이 있다.(임종욱 엮음 『동양학대사전』 2006. 경인문화사)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산천은 주요한 제사의 대상이었다.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국의 迎鼓와 고구려의 東盟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고 滌의 풍습에는 산천을 중히 여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하늘과 산천을 중시하는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산천제는 산악 그 자체에 대한 제사이기 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로 믿고 있던 산신에 대한 제사라고 볼 수 있다. 『三國史記』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산천제를 지냈던 산이나 천은 국경의 개념이나 지역 방호의 근거지, 한 집단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 또한 진산은 후삼국을 지나 고려시대에 들어서 시작된 성황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진산과 거리와 방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성들은 자기 조상을 고을을 수호하는 성황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아 결국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이성산성, 설봉산성, 반월산성, 부소산성, 공산성, 계족산성, 화왕산성, 함안산성에서는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구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산성이 축조된 산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을의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황사와도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산성은 대부분 고적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진산에 축조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에서 확인되는 제사유적은 『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보이는 산천제나 사성문제 등의 제사가 행하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적을 물리쳐 주기를 기원하는 산천제 역시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도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산성에서 이와 관련된 제사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진산에 축조된 성이나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곽은 전반적인 조사가 당시의 성곽의 축조 배경이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성에서 확인된 제사유적을 제사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은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한 어떤 목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발견되는 각각의 제물들이 어떤 상징성으로 집수정 내부나 특정 지역에 투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차후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체성부도 물론이지만 문지나 집수정, 산성 내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혈유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구가 발견된다면 위치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산성, 진산, 산천제, 성황신, 기우제, 제장.

---

## I. 서

최근 국내에서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산성의 조사 결과 산성 내에서는 제사를 지냈던 흔적으로 보이는 유구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아직까지 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예는 드문 편이어서 대부분의 산성에서 제사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몇몇 산성에서는 발견되는 유구는 위치나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관방 관련 유구나 주거지의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제사의 흔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성곽에 대한 연구가 체성과 문지에 대한 축조 수법이나 축조시기에 대한 고찰에 국한되고 있지만 대체로 고려시대까지 치소는 산성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sup>2)</sup> 산성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훌륭한 텍스트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차후로는 성곽이 단순히 관방을 목적으로 축조된 아니라면 왜 그곳에 축조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성이 축조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체성의 축조수법이나 축조시기 등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산성 내부에 대한 연구 즉 산성 내부의 공간의 분할과 이용,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성에 대한 연구는 산성의 축조 수법이나 축조시기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고 산성이 위치하게 된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나 산성 내의 공간 분할, 또는 발견된 제사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지적한 논문은 아직 없는 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주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성이 어떤 시대적·사상적 배경에서 제장으로 활용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산성 내에서 발견되는 제사유적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그 배경에 대하여 문헌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문헌 검토의 대상으로는 우선 『三國史記』가 해당되었으나 삼국사기의 기록이 상당히 영세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삼국시대의 전통이 많은 부분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려시대에 대한 기본 사서인 『高麗史』나 조선시대 초기 지리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많은 부분에서 비약이 있을 것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sup>2)</sup> 심봉근, 2005, 『한국문물의 고고학적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477~487쪽.

## II. 제장이 확인되는 산성

### 1. 유구와 유물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산성 가운데 제사유적이 확인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은 산성에 대한 조사가 지표조사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발굴조사는 대부분 체성이나 문지의 축조수법이나 문지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성 내부의 전면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많은 성곽 조사의 주된 목적이 일부 체성구간이나 문지만을 조사하여 복원 자료를 얻는데 그쳤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성곽 내에서 제사 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 성과가 축적된 결과이겠으나 산성 내에서 제사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다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산성 내에 제사유구가 확인된 대표적인 예는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 인천 설봉산성, 포천 반월산성, 충청도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대전 계족산성, 충주산성, 청원 양성산성, 전라도 광양 마노산성, 여수 고락산성, 진도 용장산성, 경상도 창녕 화왕산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상과 같은 산성에서 확인되는 집수정이나 건물지, 그리고 수혈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산성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는 설명보다는 어떠한 배경이나 행위의 결과로 특정한 유구에서 출토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3)</sup> 산성 내에서 출토되는 일부 유물이 제사행위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최근 발굴조사된 부여 논치 제사유적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이라고 생각되어 산성 내에서 발견된 유적은 아니지만 일부를 소개하였다.

덧붙여서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산성이나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논문이 작성되어야 하겠지만 보고문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sup>4)</sup> 이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sup>3)</sup> 城池에 대한 용어가 보고자마다 달라서 학계의 논의를 통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蓮池, 集水井, 集水池, 集水施設, 貯水池, 池塘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연지는 연꽃이 핀 못이라는 뜻이니 관방시설로서 성내에 위치한 못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또 일반적으로 「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므로(地穴出水-十八史略)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을 집수하는 기능이 우선인 것은 집수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집수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池穿地通水)

<sup>4)</sup>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도면은 모두 75% 축소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진은 편의에 따라 그 축소비율을 조정하였다.

### 1) 하남 이성산성 그림 1

하남 이성산성은 해발 209.8m의 이성산 정상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춘궁동, 교산동, 상사창동, 향동 등의 넓은 평야지역을 조망할 수 있으나 동쪽으로는 검단산(해발 595.9m)에 의하여 가로 막혀 있다. 이성산성의 둘레는 1,844m에 이르며 남동쪽 골짜기를 감싸 안은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곳곳에 평탄지가 조성되어 규모에 비하여 가용면적이 넓어 성 내부 면적은 160,243㎡에 이른다. 이성산성은 하남시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총 11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체성의 조사는 물론 성곽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어 우리나라 성곽 발굴조사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된다.<sup>5)</sup>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성의 북동쪽 구간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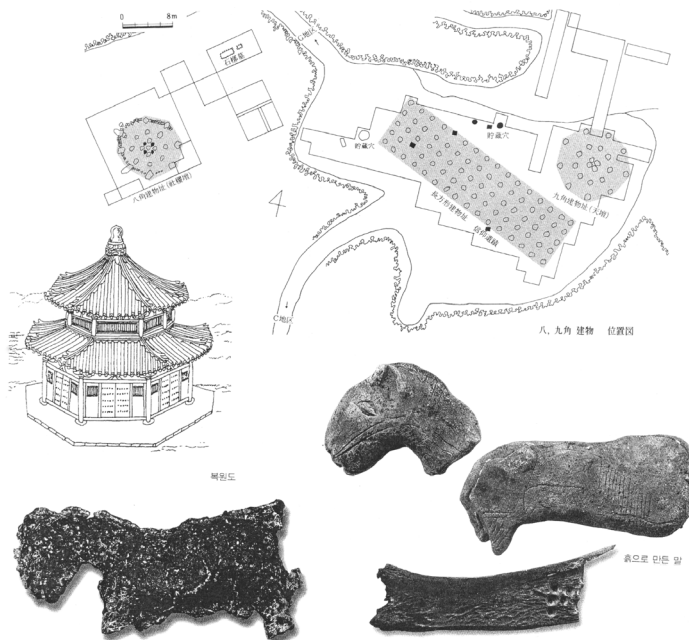


그림 1. 河南 二聖山城 建物址 配置圖(九角建物址 復原圖) 및 出土遺物

<sup>5)</sup> 성곽의 정비 복원 사업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예산확보가 항상 문제가 되어 성벽이나 문지만을 조사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성은 산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공간에 체성과 건물, 집수정 등이 부가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산성은 축성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산성 자체의 기능도 관방성인지, 치소인지, 거점성인지에 따라 산성 내부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산성 내부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확인되는 건물지만이라도 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성과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없이 편의에 따라 일부 구간만 조사하여 성곽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오히려 오랜 세월을 건디며 남아 있는 유적을 파괴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지구에서 장방형 건물지와 9각 건물지와 신앙유적, 저장공이 확인되었고 북쪽 D지구에서는 8각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3차 조사에서 성의 중앙부 C지구에서 12각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3차와 4차 조사에서는 A지구 집수정 내부에서 무진명 목간과 철기류, 목제품, 청동방울, 동곳, 빗치개, 대바구니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B지구의 9각 건물지는 지름 10.32m에 달하며 중앙의 초석을 중심으로 4개의 초석과 9개의 초석이 3열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출입구나 난방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C지구의 12각 건물지는 지름 10.78m이며 12개의 초석이 원을 그리며 3겹으로 놓여 있고 제일 외곽열의 초석과 초석 사이에는 벽체의 하단부로 보이는 석렬이 돌아간다. 그리고 D지구의 건물지는 8각 건물지로 지름 8.8m에 이르며 중심부에 하나의 초석이 있고 그 외곽으로 3열의 초석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그리고 건물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모두 4개소의 신앙유적을 조사하였는데 건물의 초석이나 초석 가까운 곳에 100~150cm 크기의 큰 돌을 올려놓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며 잔돌을 놓은 것인데 E지구 신앙유적에서는 17마리 분의 토제마와 철제마가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단에서는 9각 건물지를 천단으로 보고 8각 건물지는 사직단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앙유적에서는 모두 44개체분의 토제마와 철제마가 부러뜨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성산성의 정상부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6)</sup>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면 광주의 진산은 검단산으로 동 7리, 성황사는 남으로 7리에 있고 고적조에는 온조왕고성과 일장산성이 남아 있다.<sup>7)</sup>

## 2) 이천 설봉산성 그림 2·3

설봉산성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지 6개소, 장대지 1개소, 우물지 1개소, 치성 4개소, 문지 2개소 등의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산성의 남서부분에 위치한 장대지와 주변의 건물지 및 성벽에 대한 조사가

6)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6, 『二聖山城』,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기념특별전; 河南省·漢陽大學校 文化財研究所, 2007, 『二聖山城綜合整備基本計劃 學術研究 報告書』. 한편 생각하여 보면 광주의 진산은 검단산인데 해발고도가 538.1m에 달하여 치소가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한 면도 검단산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이성산에 축성한 동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진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성산은 크게 보아 검단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시대를 따라 진산이 바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六 廣州牧 山川, “黔丹山在州東七里鎮山 祠廟 城隍祠在州南七里 古跡 溫祚王古城 日長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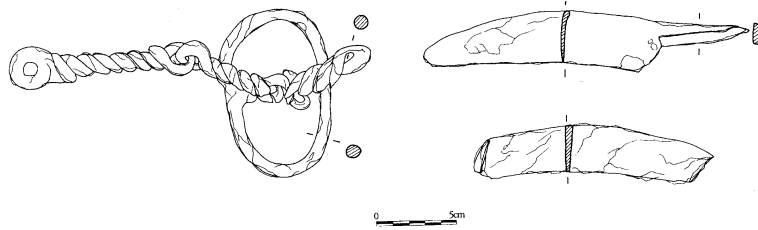


그림 2. 利川 雪峰山城 出土遺物(제갈과 刀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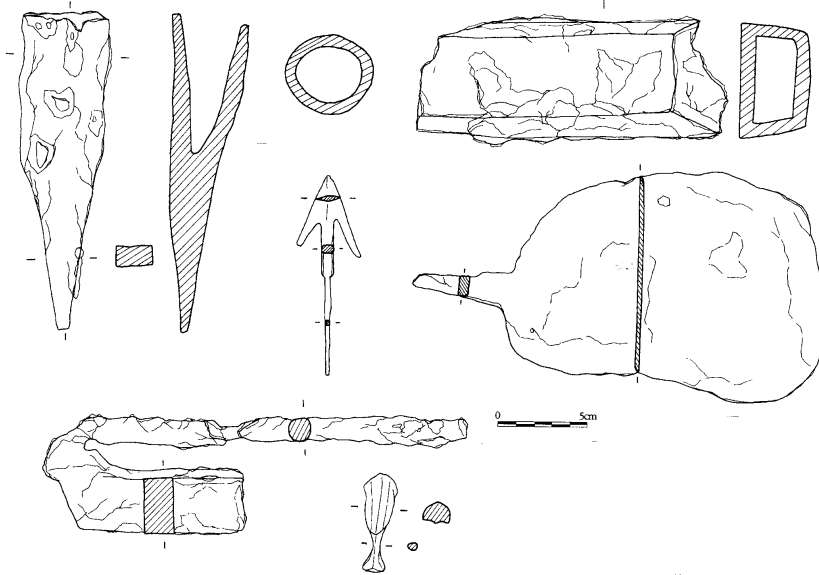


그림 3. 利川 雪峰山城 出土遺物(農耕具와 자물쇠)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6차까지의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어 있다. 조사된 건물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1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각 건물지와 수혈유구들이다. 8각 건물지는 조사단에서도 8각 제단유적이라고 이름 하였는데 석축은 북동쪽에서 2변만 노출되었으며 석축은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꺾이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파괴되었다. 남아 있는 전체 석축의 규모는 동서 4.4m, 남북 5.5m(전체면적 27.9m<sup>2</sup>)이며 석축 내부 중앙에는 원형의 함몰부가 있다. 이 같은 8각 기단은 8각형 건물의 기단으로 볼 수 있으나 초석이나 적십이 조성된 흔적이 없고 출토된 유물에서 기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기단의 주변에서 병편이 다량 수습되는 점으로 보아 일반 건물의 기단이라기보다는 제단의 성격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1차 조사에서 가지구 10기, 나지구 6기, 다지구 8기 등 모두 24기의 토광이 확인되었다. 모두 기저부인 암반층을 파고 조성한 것이며 상면에 지붕 시설을 한 것도 있었는데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였다. 출토유물은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1지구에서는 철정, 중국백자, 대형 항아리편, 보습, 철부, 과대, 낫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가지구 10호에서는 철제 민속신앙물 1점도 출토되었고 다지구 3호에서는 납석제 도장 1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sup>8)</sup>

조사결과 설봉산성은 4세기 후반경 백제가 축성하였다가 6세기 후반에는 이천지방이 신라의 점령 하에 들어가자 2차 성벽이 축조되는 것으로 보였고 통일 신라시대에도 계속하여 사용되었으나 고려시대에는 제사와 관련된 유구만 보이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후 폐성되어 민간 신앙의 기도처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新增東國輿地勝覽』이천도호부 조를 참고하면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으로 부의 서쪽 5리에 있으며 성황사는 설봉산에 있고, 고적조에 설봉산고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5112척인데 지금은 폐하였다고 하였는데<sup>10)</sup> 설봉산성이 이천의 진산으로 성황사도 위치하며 일찍부터 산성이 축조된 것은 진산이 지역 방호의 요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포천 반월산성 그림 4·5

반월산성은 포천시가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구읍리에 위치한다. 산성은 해발 283.5m의 청성산을 중심으로 산의 7부에서 9부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반월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1,080m로 동서 490m, 남북 150m의 규모이다. 산성의 체성은 협축법, 판축법이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경사가 급한 곳에는 유단식 축조법을 일부 사용하였다. 특히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는 암반을 굴착하여 수직에 가깝게 단을 조성한 후 그 위로 성벽을 축조하고 있다. 반월산성 내부에서는 많은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동문지 및 동치성 상면의 평탄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

8)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토광들의 성격은 보고자의 의견처럼 저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철제 민속신앙유물이나 납석제 도장의 예를 보아 토광이 때로는 제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9) 손보기·박경식·김병희·황정욱·정성권,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이천 설봉산성 4·5·6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八 利川都院慶府, “山川 雪峰山在府西五里嶺山 祀廟 城隍祠在雪峰山古跡 雪峰山古城石築周五千一百十二尺今廢。”

물지가 주목된다. 1차 건물지는 동서 길이가 25.9m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것인데 유물로 보아 상한은 630년경이라고 한다. 2차 건물지는 정면 8칸에 부속 건물 1칸으로 추정되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로 볼 수 있고 3차 건물지는 8세기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4차와 5차 건물지는 파괴되어 정확한 건물의 규모를 알기 어려우나 건물지가 2개로 분리되면서 축소되었고 모두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지의 성격은 조사단에서는 건물지에서 토기의 출토량이 적고 무기류의 빈도가 높은 점, 온돌이 시설되었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생활유적은 아니며 군사지휘소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군사관련 지휘소는 조망권이나 취수 등을 고려하면 동문지 부근보다는 우물이 위치한 남문지 부근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성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지는 최소 3차 이상의 건물의 축조와 중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것이다.

반월성에 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포천의 진산은 북으로 1리에 있는 성산이며 성산에는 성산고성은 석축의 둘레가 1,937척인데 지금은 폐하였다고<sup>11)</sup> 하여 이천 설봉산성의 상황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동문지에 인접하여 축조된 건물지는 오히려 제사를 지냈던 장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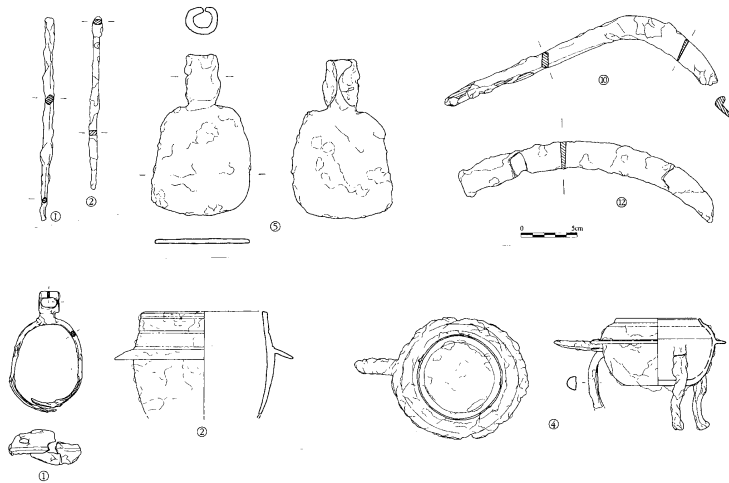


그림 4. 抱川 半月山城 出土遺物(화살촉, 農耕具, 鏡子, 鏝斗 등)

11) 『新增東國輿地勝覽』抱川縣, “郡名 馬忽 命旨 堅城 抱州 山川 城山 在縣北一里 祠廟 城隍祠在 城山 古跡 城山古城石築周一千九百三十七尺今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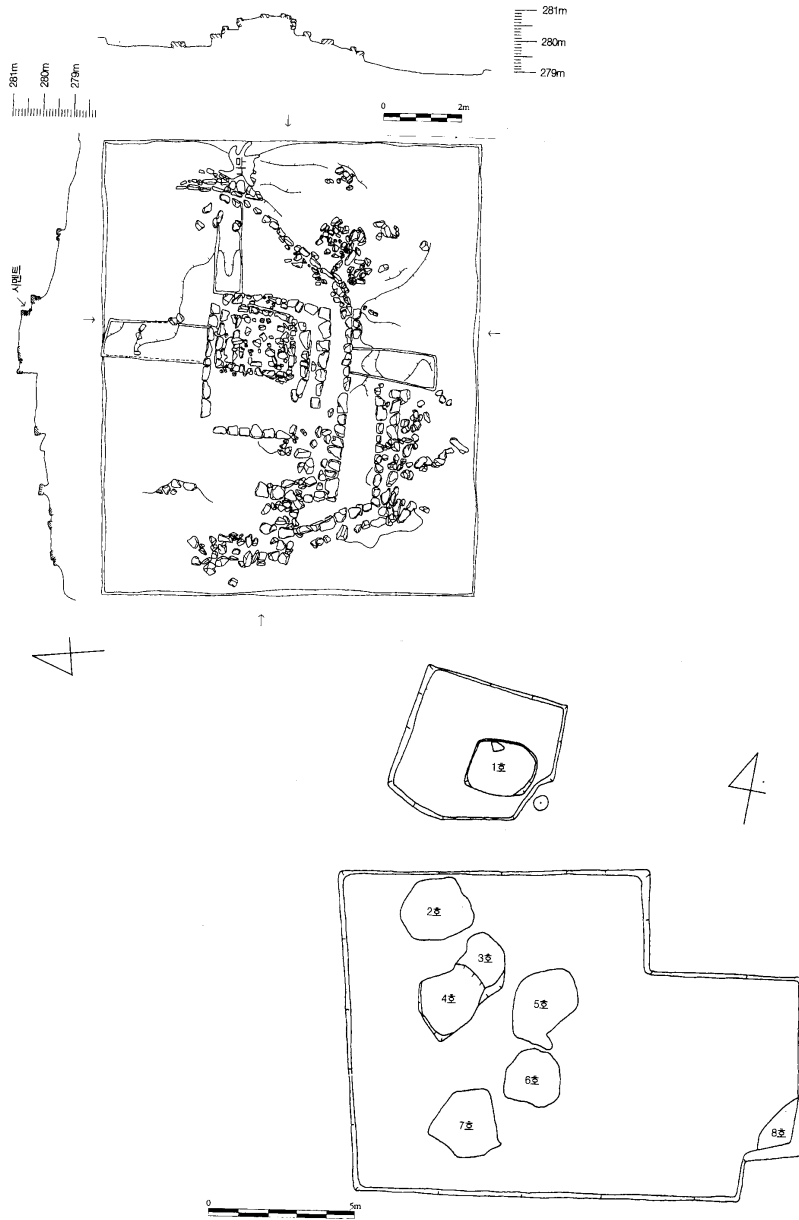


그림 5. 抱川 半月山城 애기당지 平面圖와 헬기장 周邊 土坑 配置圖

는 온돌시설이 없는데 오히려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하므로 일상적인 용도  
 외의 불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해가 뜨는 동쪽과 인접하여 반월성 내에서는  
 오히려 좀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반월성 내부에서

는 집수정이 확인되지 않아 유사시 농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된 애기당지는 근대에 조성되었던 애기당지 하부에서 고려 시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제사유적이 노출되었다. 이것이 제사유적인 것은 근대까지도 민간신앙 행위가 유지되었고 애기당지 하부에서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유구와 철제 소형마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삼국시대의 유물과 함께 많은 수의 제의에 사용되었을 자기편과 함께 철제 가위, 자물쇠, 초두 의 철제품, 도제 및 철제 동물상 4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므로 포천 반월산성은 통일신라 시대까지 포천의 치소였으며 진산으로 제사를 모시던 장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4) 공주 공산성 그림 6

공산성 지당은 금강에 연한 부분에 석성 형태의 축석을 동서간 42m, 높이 3.8m의 규모로 쌓은 다음 13m 너비의 제방형태의 독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편마암제의 석재로 평면 철자형의 구조로 조성된 것이다. 지당 I 의 규모는 동서간 22m, 남북간 11.5m, 깊이 10.2m이며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일정한 높이마다 단을 두어 좁혔다. 지당의 바닥은 북벽에 치우쳐 있으며 좌우에 지당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입수시설을 북벽에 방형으로 마련하였다.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수막새기와, 백제기와, 통일신라시대 기와,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고 특히 2차 저수지에서는 백제시대의 제사용기로 보이는 삼족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공산성 지당에서 백제시대에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sup>13)</sup>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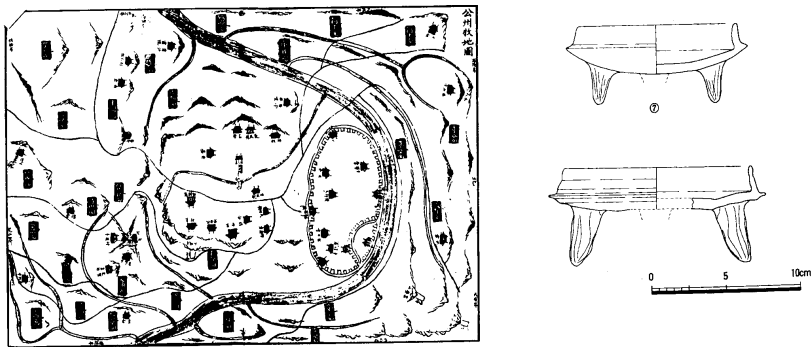


그림 6. 〈公州牧地圖(輿地圖書)〉와 池塘 出土 三足土器

12) 박경식 외, 2004,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Ⅰ)(Ⅱ)-,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 23책, 포천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3) 李南奭·李勳, 1999, 『公山城池塘』,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는 공주의 진산은 계룡산이 아니라 공산성이며 조선시대에 수축된 성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 공산에는 성황사가 있다고 하였다.<sup>14)</sup>

5) 부여 부소산성 그림 7·8

부소산성은 1981년부터 2002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로 많은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부소산성의 구조는 부소산의 외곽을 따라 백제시대에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 동·남·서벽은 해발 75m 내외의 부소산 외측 급경사면을 따라 구축되었으며 북벽은 계곡부를 포용하여 축조되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 이 포곡식 산성 내에 필요에 따라 동남쪽 테피식 산성과 서북쪽 테피식 산성이 축조되었으며 동남쪽 테피식 산성은 조선 초 군창지를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군창터 서편으로 40m 떨어진 중간 부분에 남북향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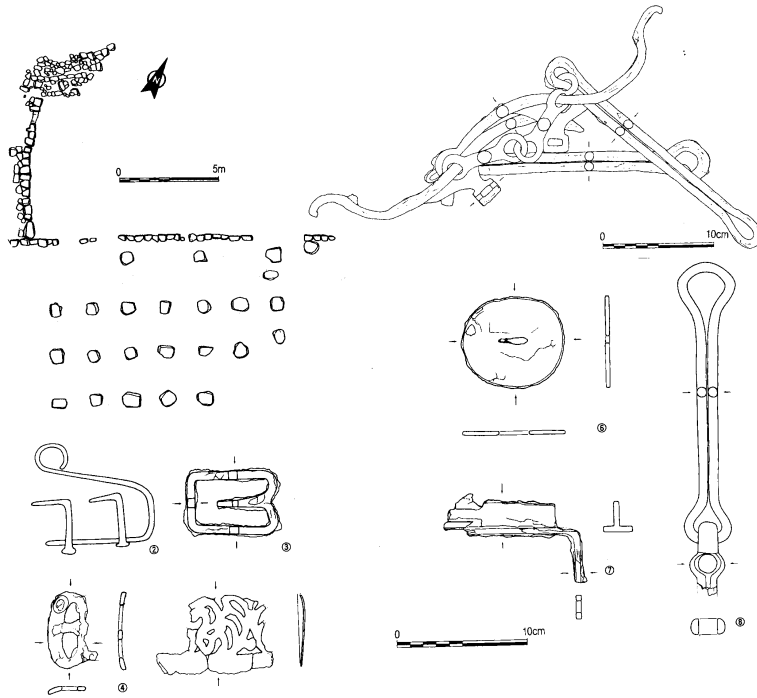


그림 7. 扶蘇山城 內 統一新羅時代 建物址 및 出土遺物(재갈, 자물쇠 등)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七 公州牧, “郡名 熊川 熊津 熊州 山川 鷄籠山 在州東四十里 又見 連山縣 公山在州北二里鎮山 山形如公字故名 城郭 公山城 在州北二里石築周四川千五百十尺高十尺 中有井三池一 又有軍倉 祀廟 城隍祠 在公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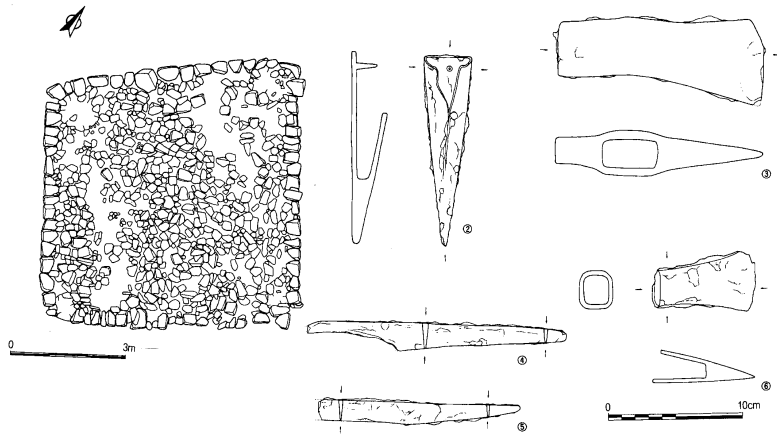


그림 8. 扶蘇山城 方形建物地址 및 出土遺物(도끼, 刀子 등)

196m 길이의 성벽이 축조되어 군창지 소재 테피식 산성과 수혈주거지 소재 테피식 산성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백제시대에 초축된 부소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 기록에 나타난 우두성으로 비정되어 초축시기가 동성왕 8년(486)으로 밝혀졌다.

산성 내의 조사는 성벽에 관한 조사는 추정 남문지 동·서편 성벽과 동문지 주변, 삼층사 후면, 남문지 서편, 사비루 동북편 테피식 산성의 병목부 등과 문지로는 삼층사 북편, 동문지 북편, 군창터 정북편, 수혈주거지 동북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비루 동쪽 구릉 정상부의 장대지와 후대 동문지 북편, 군창터 정동편, 삼층사 뒤 추정 남문지 서편의 치성과 보축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산성 이외의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소산 서남쪽 동쪽에 위치한 폐사지(백제 왕궁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점으로 보아 기원사찰로 판단됨), 군창지(조선시대 건물지로 부소산성 내 가장 큰 건물지)가 있고 서문지 주변에서 확인된 기단건물지(백제시대 후기 건물지, 구조물을 구성하였던 어떤 시설이나 지하 잔존 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수혈건물지(서문지 앞 광장과 군창지 사이에 위치, 병영시설로 추정됨), 주거지 5동(군창지 남서편 위치), 사비루 동편 일대 방형적석단(조선시대 건물지 아래에서 동서방향의 통일신라 건물지 발견), 북문지 동편 능선 정상부의 수혈건물지와 굴립주 건물지, 취수장부지 동편 능선 정상부와 계곡부 사이의 평탄 대지에서 발견된 토기 밀집유구(동서 350cm, 남북 260cm, 호, 기대, 고배, 뚜껑, 개배, 삼족배 등 폐기된 각종 토기가 출토)가 있다.

이 가운데 서문지 주변에서 확인된 건물지나 사비루 동편에서 발견된 방형

적석단, 북문지 동편 능선 정상부의 수혈건물지와 굴립주 건물지, 취수장 부지 동편 능선 정상부와 계곡부 사이의 평탄대지에서 발견된 토기밀집유구 등은 제사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문지 동편 능선 정상부의 건물지는 이성산성이나 설봉산성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가 위치하였던 방향과 일치하며 최근 부산 기장군 대라리에서 발견된 제사유적 또한 주거지와 고분군이 밀집하고 있는 4개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북쪽 봉우리에서 굴립주 건물지가 목책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sup>15)</sup> 또한 부소산성 내에는 서복사지나 사비루 주위에 사지가 있고 신령이 산다는 신성한 숲이나 제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백제를 수호하는 日山, 五山, 浮山 등의 삼신산 가운데 부산은 백마강 건너 서쪽 들녘에 있으므로 부소산이 크건 작건 많은 제사의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三國史記』 제사조에 백제는 매년 사중월(2,5,8,11월)에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 제사한다고 하였고<sup>16)</sup>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부소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부소산성은 백제의 도성이었고 성황사가 부소산 정상에 있다고 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이 부소산성의 기능이 군사적인 것 말고도 백제 왕궁의 후원으로 조원적 역할이나 제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아 앞서 지적한 유구들 말고도 다른 관점에서 제사의 흔적으로 판단되는 유구와 유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sup>18)</sup>

#### 6) 대전 계족산성 그림 9

계족산성 저수지는 1차 저수지와 2차 저수지로 나누어지는데 1차 저수지의 전체 평면은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17m, 단축 9m, 깊이 3m에 이른다. 출토유물은 토기편, 기와편이 있다. 2차 저수지는 1차 저수지의 폐기 후에 축조된 것으로 장축 20m~16m, 단축 8m~4m, 깊이 3.6m(동벽)~5m(서남벽)이다. 2차 저

15)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5, 『청강 대라리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16) 『三國史記』 卷第32 雜志 第1 祭祀·樂 祭祀 高句麗·百濟 冊府元龜 百濟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扶餘縣, “扶蘇山 在縣北三里鎮山 東峰有坡陀處號迎月臺 西峰曰送月臺 祠廟 城皇祠 在扶蘇山頂 古跡 半月城 石築周一萬三千六尺 卽古百濟都城也 抱扶蘇山而築兩頭抵白馬江 形如半月故名 今縣治在其內。”

18)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부소산성 중간발굴보고』; 1996, 『부소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997,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Ⅱ, 1999,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Ⅲ; 1999, 『부소산성 -정비에 따른 긴급발굴조사-』; 2000,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Ⅳ; 2003, 『부소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심정보, 『부소산성의 구조와 축조시기』·정재훈, 『부소산성의 조원적 의미』·김영모, 『부소산성 발굴조사 결과와 유구 및 유적의 정비방안』, 2006, 『부소산성을 다시 본다』 부여군 백제신서 01, 주류성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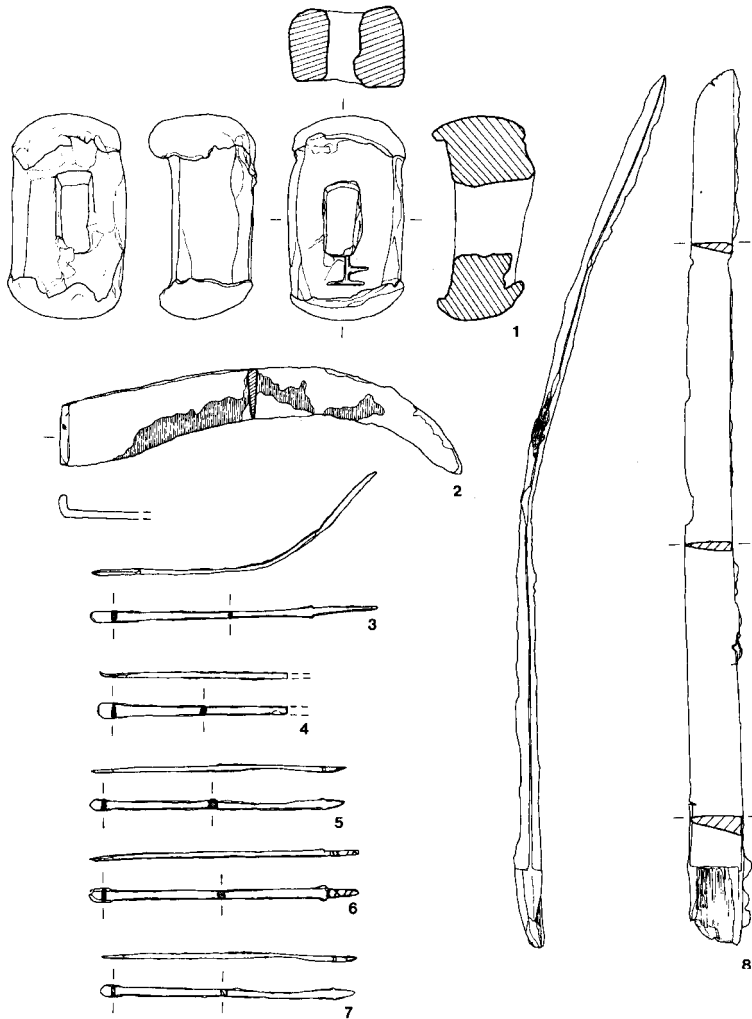


그림 9. 鷄足山城 集水池 出土遺物(大刀, 화살촉, 鐵鎌 등)

수지 내부의 퇴적토는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하층에서는 다량의 토기편, 기와편을 비롯하여 망치, 대도, 화살촉과 낫 등의 철기류, 그리고 식물유기체 등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집수지 내부에서 왜 철제대도나 망치가 출토되었느냐 하는 점으로 고의적인 투기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바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19)</sup>

한편 계족산성도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면 회덕현의 진산으로

19) 朴淳發·李晨準·土田純子·李岷燮, 2005, 『大田 鷄足山城』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大田廣域市.



비나 철제 도끼, 도자 등이 출토되는 경우는 이천 설봉산성, 포천 반월산성, 부소산성, 계족산성, 마노산성 등이 있는데 농경구는 산성 내에서 집단적인 농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철제 유물들 모두 어떤 배경으로 집수지 내에서 출토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勝覽』의 文義縣 산천조에 양성산은 현의 서쪽 사리에 있다고 하였고 성황사는 양성산에 있고 양성산성은 석축으로 가운데 큰 못이 있다고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기록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들이 대부분 진산에 위치하면서 성황사와 방향이 일치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 8) 충주산성 그림 11·12

충주산성은 충주평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이 뛰어난 자리에 축조되었다. 산성의 동문 남쪽 집수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집수지의 전체적인 형태는 아래 부분은 사다리꼴, 위쪽은 원형 내지 말각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다리꼴의 호안은 계단식의 3단으로 석축하였으며 그 위로 당초 2차 호안으로 추정된 말각다각형의 석축이 이어진다. 사다리꼴의 저수지는 바닥으로부터 당초 남측 호안이 보다 긴 사다리꼴의 저수지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 석축 열까지 계속 방향인 남서쪽 모서리를 석축으로 보강하므로써 마치 오각형처럼 보인다. 위쪽의 말각다각형의 호안은 수압과 토압으로 인하여 석축의 윗부분이 호안의 내측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집수지의 바닥면은 산 정상부에서 이어지는 암반의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서쪽과 북쪽이 높고 남동쪽 모서리 부분이 가장 낮다. 바닥면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 차이는 약 120cm에 이른다. 바닥면은 암반 위에 회색의 점토를 채운 후 얇은 판석을 깔아 부석하여 담수된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출토유물로는 철기류는 복환식 경판을 가진 재갈, 철축 10점, 철도자편 6점, 마구의 사행철기로 추정되는 철기 1점, 철제 가위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토기류는 호의 구연과 동체편, 토기완편, 단각고배 및 배신편, 우각형 파수편이 있고 기와류는 선문계열의 수키와와 암키와가 출토되었으며 막새기와는 없었다. 기타유물로는 할석제 방추차, 목제 방망이 등이 출토되었다.<sup>23)</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유물은 말과 관련된 재갈과 사행철기, 그리고 철축과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五 文義縣, “山川 壤城山在縣西四里 祠廟 城隍祠在壤城山 古跡 壤城山城石築周三千七百五十四尺高一丈 中有圓池號大池 周一百九十二尺八寸四面皆側石成砌 其沈不測 水旱無固溢。”

23) 차용걸·조순흠, 2005,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연구원 서 제48책,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충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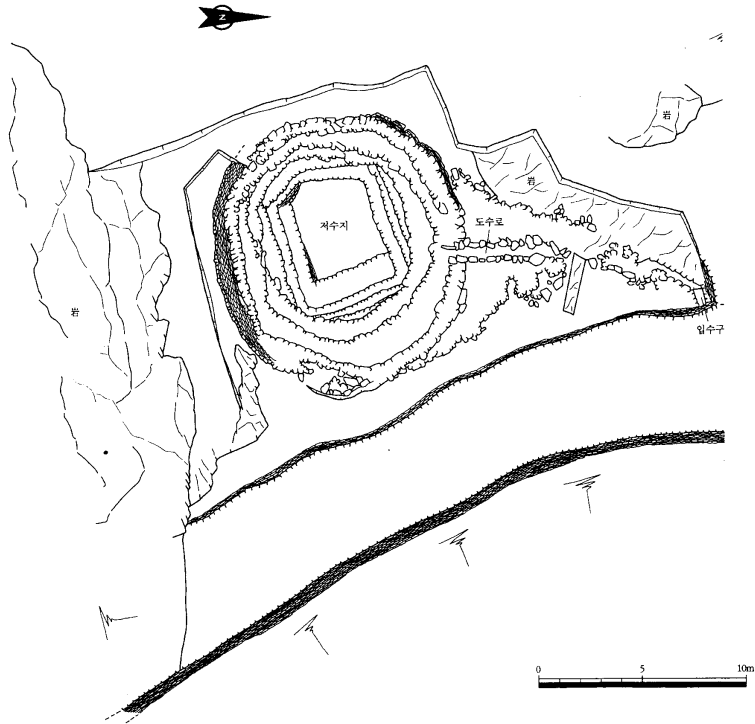


그림 11. 忠州山城 貯水池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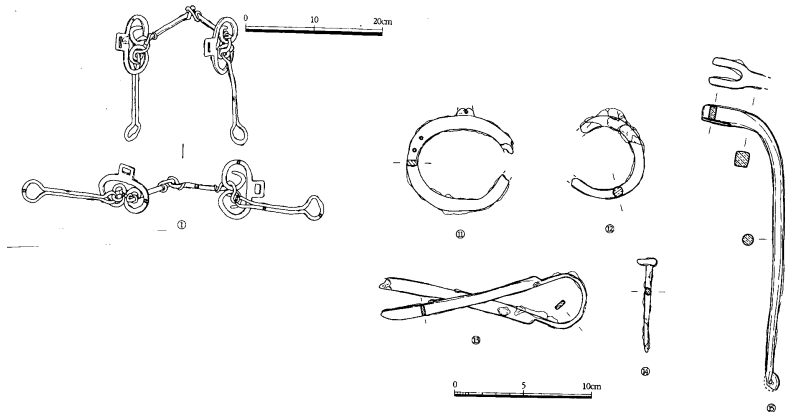


그림 12. 忠州山城 貯水池 出土遺物(재갈, 鐙子, 가위 등)

철도자, 가위가 있다. 재갈이 출토되는 집수정은 충주산성 말고도 광양 마노산성, 여수 고락산성, 창녕 화왕산성 등이 있는데 필자는 집수정 내에서 재갈이 출토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말을 공헌하여야 하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

말을 대신하여 마구를 집수정 내에 투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수정 내에서 가위가 출토되는 것도 창녕 화왕산성의 경우와 동일한데 가위의 양식은 화왕산성 보다 앞서는 것이지만 집수정 내에 가위가 발견되는 것은 안압지에서도 보다시피 집수정 내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용왕에 대한 헌물로 보인다.<sup>24)</sup>

한편 충주산성은 『勝覽』의 기록에 나타난 동악성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의 동쪽 13리에 있고 석축으로 둘레가 2280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고 하였다.<sup>25)</sup>

### 9) 광양 마노산성 그림 13·14

광양의 마노산성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에서는 일반 건물지와는 다른 특이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I-1건물지 초석 측면 상층에서는 해수포도경 1점, I-2건물지에서는 토기와 청자편, 철부, 철제가위, 철검, 철제보습, 철제등자, 철제요대, 청동술걸이, I-3건물지에서는 토기, 마노관명 기와, 철제차관, I-4건물지에서는 단경호, 청자, 백자해무리굽완, 철부, 철제가위, 철검, 철제따비, 철제자물쇠편, 철제교구, 청동집계, II-1건물지에서는 토기, 백자해무리굽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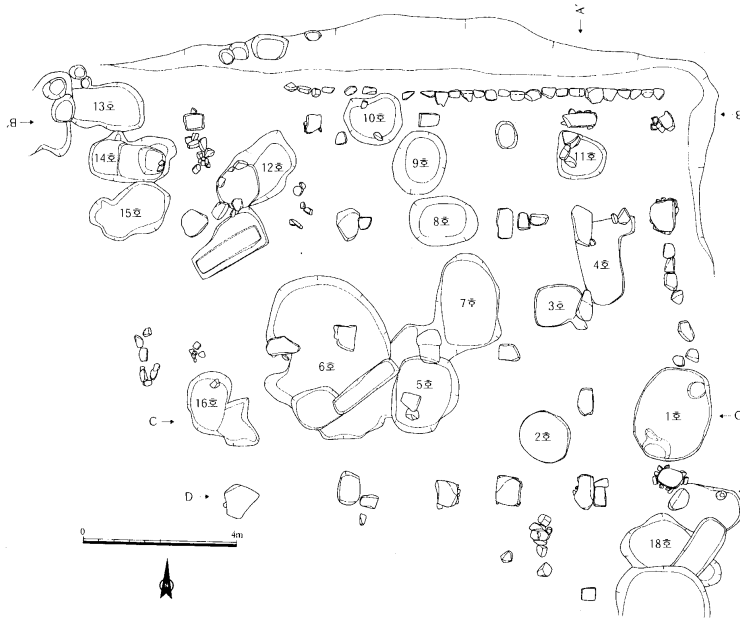


그림 13. 光陽 馬老山城 II-1建物址 平面圖

24) 정의도, 2007, 『고려시대 철제가위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단연구원.

2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 忠州牧, “桐岳山 在州東十三里 石築周二千二百八十尺 內有一井 今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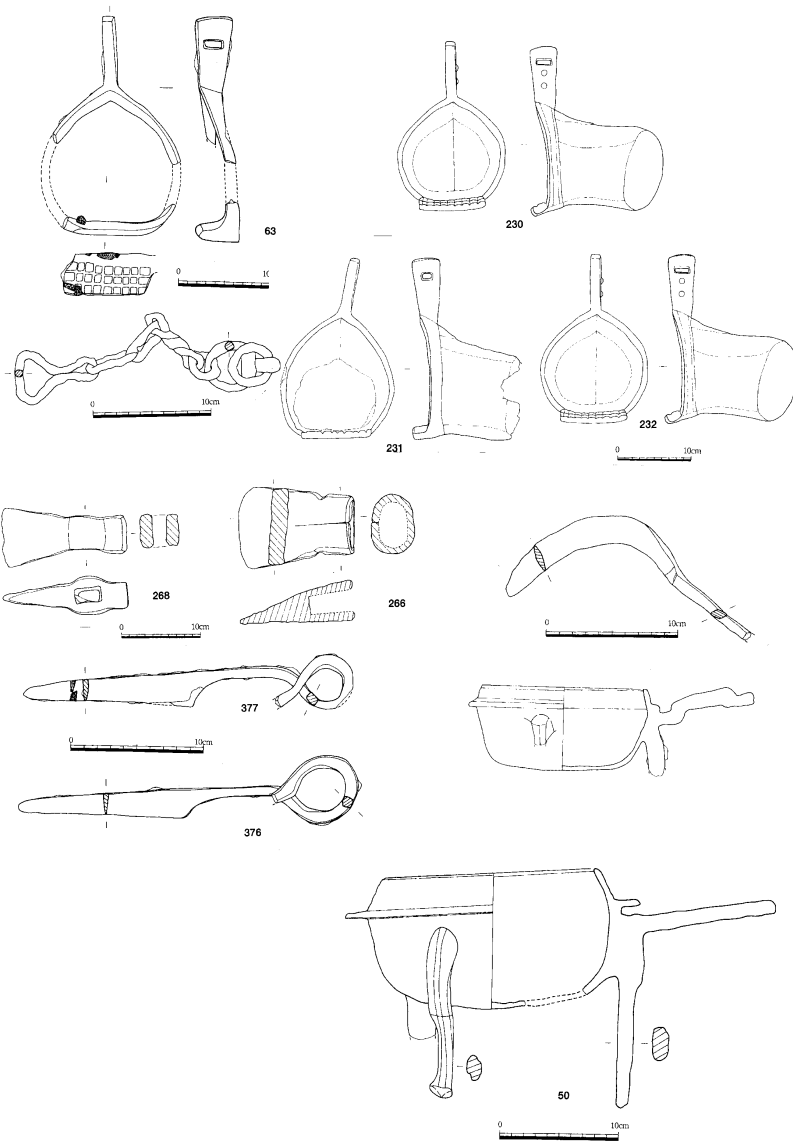


그림 14. 光陽 馬老山城 建物址 內 豎穴 出土遺物(鐙子, 壺鐙, 재갈, 도끼, 가위, 鏹斗 등)

마노관명 기와, 철부, 철촉, 철도자, 철제차관, 철제요대, 청동장식품, 7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백자구연부편, 10호 수혈 내에서는 호등 3점, 13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관자명 와, 철제재갈, 14호 수혈 내에서는 철촉, 은제장식, 이형철기, 15호 수혈 내에서는 철제술, 16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구연부편, 청동유개합, 백자구연부편, 17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청동향로, 철제초

두, 철부, Ⅱ-2건물지에서는 단경호, 구연부편, 백자구연부편, 마노관명 기와, 철부, 철제요대, Ⅱ-3건물지에서는 마노관명 기와, Ⅱ-4건물지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청자 구연부편, 백자 구연부편, 마노관명 기와, Ⅲ-2건물지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파수편, 철도자편, 1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동체부편, 철촉, 철고리, 2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철촉, 이형철기, 3호 수혈 내에서는 토기 구연부편, 5호 수혈 내에서는 철제뚜껑, 이형철기, 9호 수혈 내에서는 철제요대, 철제한, 철검, 철제요대, 철부, 10호 수혈 내에서는 철제가위 3점, 청동완 1점 등이 출토되었다.<sup>26)</sup>

그런데 Ⅱ-1 건물지와 건물지 내부에서 발견되는 18기의 수혈과의 관계와 Ⅲ-2 건물지와 건물지 내부에서 발견되는 수혈과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물지라고 보고하였는데 보고서만으로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출토유물의 내용이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토기는 모두 편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등이나 가위, 철부, 초두, 청동향로, 청자편, 백자편 등의 출토유물은 출토되는 상황이나 유물의 내용으로 보아 일반적인 건물지 내에서 출토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유물이 창녕 화왕산성 연지와 축조 시기도 비슷하고 연지 내부 퇴적토 바닥층에서 출토된 유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산성 내에 위치한 수혈이나 짐수지가 단순히 군창이나 짐수지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sup>27)</sup>

한편 이처럼 제장으로 장기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광양의 옛이름이 마노이며 마노산은 『승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광양의 동쪽에 있어 조선시대의 진산은 아니지만 성황사와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8)</sup>

#### 10) 여수 고락산성 그림 15

고락산성은 해발 335m의 고락산정과 고락산의 동쪽에 있는 해발 200.9m의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345m 정도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고

26) 崔仁善·李順葉 2005, 『光陽 馬老山城 I -建物址-』, 光陽市·順天大學校 博物館.

27) 그리고 필자가 마노산성 발굴조사 현장을 답사하였을 때 동문지 바로 앞에서 제사유적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삼국사기 제사조의 사성문제를 연상되었다. 그리고 마노산성에서 출토된 대도의 신부는 도의 형태를 하고 봉부는 양날을 세워 검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창녕 화왕산성 짐수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식의 것이어서 화왕산성과 마노산성의 성격이 정말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28) 『新增東國輿地勝覽』光陽縣, “郡名 馬老 睇陽 山川 白雞山在縣北二十里嶺山 山頭有岩岩下有泉 泉底白雲時出 凡有禱輒應齋戒 不謹則泉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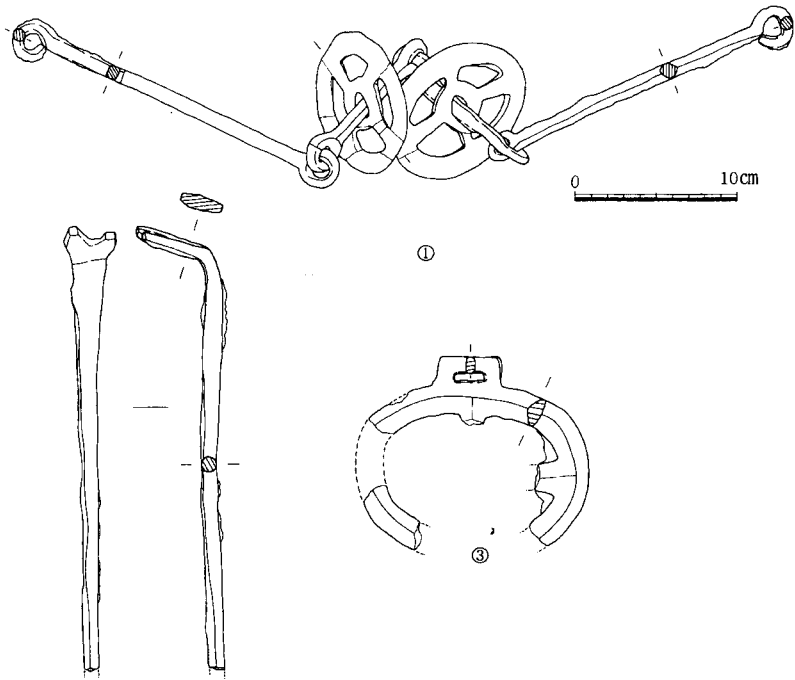


그림 15. 麗水 鼓樂山城 集水井 I 出土遺物(재갈, 杏葉 등)

락산성에서는 석축 집수정 1개소, 점토 집수정 2개소가 확인되었고 보루에서는 석축 집수정 1개소가 출토되었다. 본성의 집수정 가운데 석축집수정은 석비례층을 지름 90cm 크기로 파고 그 내부에 지름 50cm, 깊이 250cm 규모로 벽석을 쌓아 만들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그리고 보루의 집수정 바닥은 희미하게나마 6각형 형태를 하고 있어서 내부에 목조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수정 1 내부 출토유물은 단경호와 고배, 방추차 등의 토제품이 있고 특히 철제유물 가운데는 재갈과 행엽, 철도자 등이 있어 주목되는데 마구의 일부가 집수정 내에서 출토되는 까닭은 앞서 설명한 충주산성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sup>29)</sup>

#### 11) 진도 용장산성 그림 16

1964년 사적 제126호로 지정된 용장산성은 고려 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sup>29)</sup> 최인선 외, 2003, 『여수 고락산성 I』 순천대박물관 지방문화총서 제44, 순천대학교 박물관·여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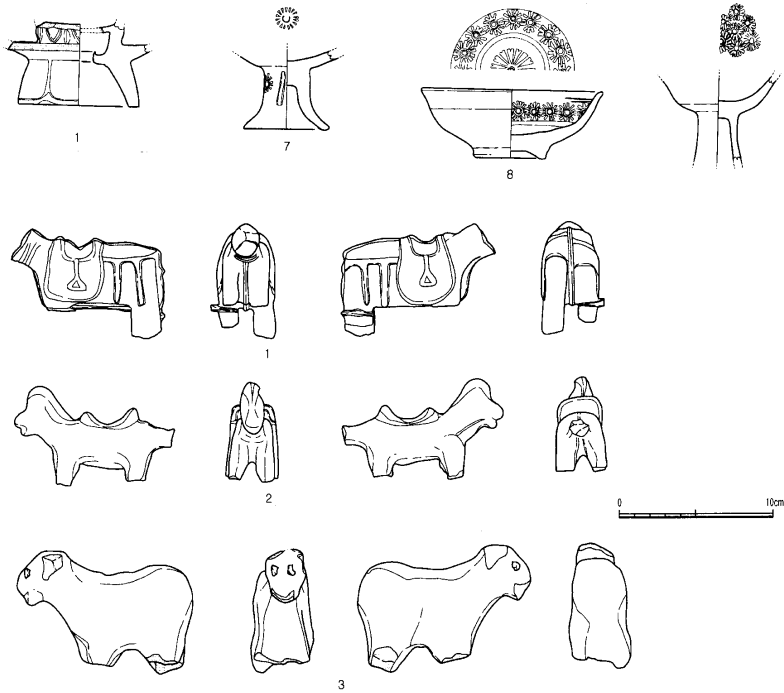


그림 16. 珍島 龍藏山城 內 祭祀遺蹟 出土遺物(靑磁片, 鐵製馬, 土製馬)

군이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산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장산성은 북벽과 서벽 및 동벽의 일부는 바다와 접하고 나머지 구간은 산 능선을 통과하고 있다. 용장산성은 북벽구간 및 둔전저수지 북쪽의 서벽구간까지는 토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조사 결과 석축성으로 협축법에 의해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 내부의 조사에서 선황산 줄기 가운데 가장 북쪽 정상부에서 제사유적이 발견되었다. 남북 장축이며 경사가 낮은 동쪽 부분에만 4단의 계단식으로 축조하였고 기단부를 포함하여 3단으로 이루어진 중앙부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내부에는 토전이 깔려 있어 상당한 격식을 갖춘 건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는 동전류, 토제·철제마, 청자잔과 반침, 철화장고편을 비롯한 각종 청자 및 분청사기, 백자 등의 자기류, 청동거울 및 청동수저, 벼루편 등 고려초기에서 조선후기까지의 제사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해발 230m 지점의 선황산 최정상부에 위치한 건물지에서는 철제 솔편을 비롯하여 철제 다리편, 청동병, 환옥 등이 출토되었다.<sup>30)</sup> 보고서에서는 선황산 최정상부에 위치한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

<sup>30)</sup> 최성락 외, 2006, 『진도 용장산성』 목포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제131책, 목포대학교박물관·진도군.

을 생활용기로 보고 있다. 아직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향과 위치, 그리고 선황산이라는 명칭이 성황사에서 온 것으로 보아 앞선 유적과 같이 제사 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勝覽』에는 진도의 진산은 가흥산으로 군의 동쪽 15리에 있고 성황사는 가흥산에 있으며 용장성은 군의 동쪽 25리에 있는데 고려 원종때 삼별초의 반란기지였다고 하였다.<sup>31)</sup>

## 12) 창녕 화왕산성 그림 17

화왕산성은 창녕의 鎭山인 화왕산의 정상(해발 739m)에 위치하고 있는 山頂式 石城으로 初築年代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 성의 서쪽으로는 昌寧邑을 조망할 수 있으나 나머지 방향으로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山城은 화왕산의 남북 두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둘레 2.7km, 면적 약 56,000坪에 달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후기 『輿地圖書』가 편찬될 당시까지는 “火王山城”이라 불리었다. 창녕의 진산에 축조되어 있는 성이라는 점과 창녕뿐만 아니라 영산·현풍을 포용하는 성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의미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성의 둘레는 “一千二百七十七步(1보는 6척)”이며 성내에는 샘이 아홉이며 못이 셋이 있고 군창도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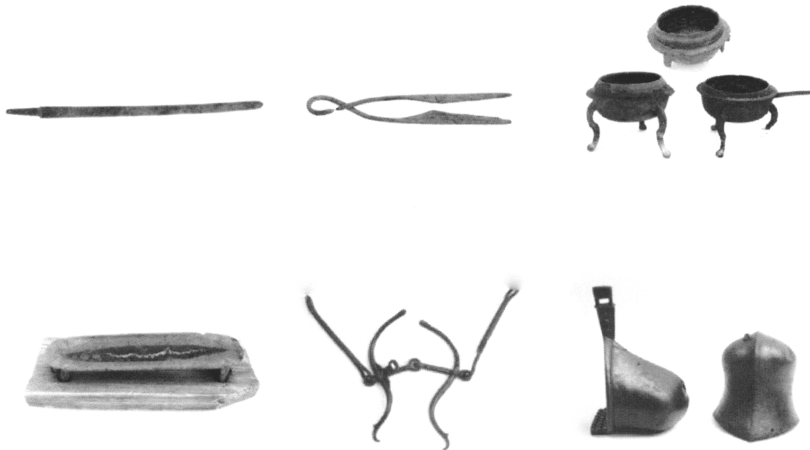


그림 17. 昌寧 火王山城 蓮池 出土遺物(大刀, 가위, 鏹斗, 茶硯, 재갈, 壺鐘)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七 珍島郡, “山川 嘉興山在郡東十五里 郡治內嘉興之地 故因名其山 祠廟 城隍祠在嘉興山 古跡 龍藏城 在今治東二十五里 石築周三萬八千七百四十一尺高五尺 高麗元宗時三別抄 叛自江華府入據此島 大營宮殿金方慶討誅之此其舊基。”

집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화왕산의 정상부는 盆地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 내부는 서쪽의 창녕 방향이 높고 서쪽의 영산 방향이 낮아 西에서 東으로 緩慢한 傾斜를 이루며 내려간다. 따라서 집수지가 위치하는 계곡부는 城內의 모든 물이 集水되는 곳으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집수지를 구축하기 위한 적지로 판단되고 집수지에서 30m 이내에 남문이 위치하기 때문에 내부에 흐르는 물을 한번 잡아서 문지에 강수량이 많을 경우에 계곡을 따라 내려온 물이 바로 문지와 체성에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겸하고 있다.

집수지는 현재 내부의 퇴적이 심하여 이미 집수지로서의 機能을 喪失하고, 그 痕迹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집수지는 창녕 조씨의 탄생설화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명 ‘龍池(龍潭)’라고도 하며 화왕산성 동문지 아래에 “昌寧曹氏得姓之地”라고 쓴 비석이 남아 있다.

集水池의 規模는 외연의 규모가 동-서방향이 34m 50cm, 남-북방향이 31m 90cm이고, 호안석축은 14m×14m(수직으로 쌓은 석축 12m50cm×12m50cm) 규모로 집수지의 平面形態는 方形이다. 집수지 호안석축의 높이는 약 240cm(수직으로 쌓은 석축 높이 190cm 내외)정도로 호안석축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50cm×20cm 정도이고 남쪽 호안 아래에는 1m 이상의 장대석을 일부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집수지의 바닥은 연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착하고 난 이후에 자연암반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호안 석재는 모두 이곳에서 채석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암반에는 채석흔이 잘 남아 있다.

집수지 내부 퇴적층은 크게 3시기로 구분되는데 상부에서부터 현대층, 조선시대층으로 층 내에서 자기편과 목제품이 출토되며, 獸骨(호랑이 두개골·하악골과 사슴뿔, 멧돼지 두개골·하악골)도 확인된다. 그 아래의 통일신라 층은 유기물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출토된 유물은 손잡이가 없는 철제 大刀 2점, 경통, 다연, 철제호형등자 2점, 철제재갈, 청동령 2점, 청동제대접 2점, 鏹斗, 가위, 자물쇠 등의 금속유물과, 수막새 등의 기와, 단경호, 편병, 중국 형요 제작 백자해무리굽완 등의 토기와 자기, 용왕명 목제인형 등이 확인된다. 의문점은 왜 경주 왕경 수준의 유물들이 하필이면 창녕 화왕산 집수지 내부에서 출토되었을까 하는 것으로 철제대도에 손잡이가 제거되고 투기된 점, 호등과 재갈은 제사에 말을 대신한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목제 인형의 정수리와 목, 어깨에 못을 박아 주술적인 행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龍王」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남아 있는 점, 그리고 경주 안압지와 같이 가위가 출토되고 있는 점 등은 분명히 고의적인 투기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화왕산성 집수지 내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우연히 집수지 내부로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의 결과로 수장된 것이며 연지는 통일신라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숭배되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三國史記』에 잘 남아 있는데 “三山五嶽 以下 名山大川에 大·中·小祀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sup>32)</sup> 그리고 화왕산 정상은 <진흥왕척경비>가 일제시대에 화왕산 중턱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최초의 건립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창녕이 경덕왕 당시 화왕군이었으니 화왕산은 이미 그 당시부터 신성한 산이었으며 진산으로 경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통일신라시대 창녕의 산천제는 화왕산에서 치러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sup>33)</sup> 이것은 집수지 내부 퇴적토의 통일신라시대층에서 『龍王』명 목제인형이 출토된 점과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창녕 조씨의 득성설화와 관련하여 화왕산성의 집수지를 용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신앙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연지에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호랑이 두개골을 넣어 기우제를 지내게 된 것으로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 13) 함안 성산산성 그림 18

함안 성산산성 집수지는 서쪽과 동쪽의 호안 석축 일부가 확인되었을 뿐이지만 내부 퇴적토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많은 양의 토기를 비롯하여 기와, 철촉·철모 등의 철제무기류, 철제따비·철검 등의 농공구류, 철정·철북·청동완 등의 생활용구류, 목간, 붓과 도자 등의 문방구류, 환두도·목검편·조형목제품, 직조구, 식기류 등 실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저수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목제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동문지 주변 저수지는 일종의 폐기장으로 저수지 주변에는 목간을 비롯한 소형 목제유물을 생산하던 작업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목서가 남아 있는 목간이 작업장에서 깎아서 다시 쓰기 위해 보관하던 것을 버렸는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의례용구로 분류된 목제 환두도편,

<sup>32)</sup>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條.

<sup>33)</sup>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의 집수지는 6세기 대에 축조된 고신라의 집수지를 파괴하면서 축조되었고 화왕산 정상에는 4~5세기대의 수많은 토기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화왕산이 진흥왕의 순수비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신성시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up>34)</sup>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寧縣, “郡名 比自火 比斯伐 火王 下州 山川 火王山在縣東四里鎮山 祠廟 城隍祠在縣東一里 古跡火王山古城石築周三川千九百八十三尺今廢中有泉九池三.”; 鄭義道, 2006, 『昌寧 火王山城 蓮池研究』, 『韓國城郭學報』 제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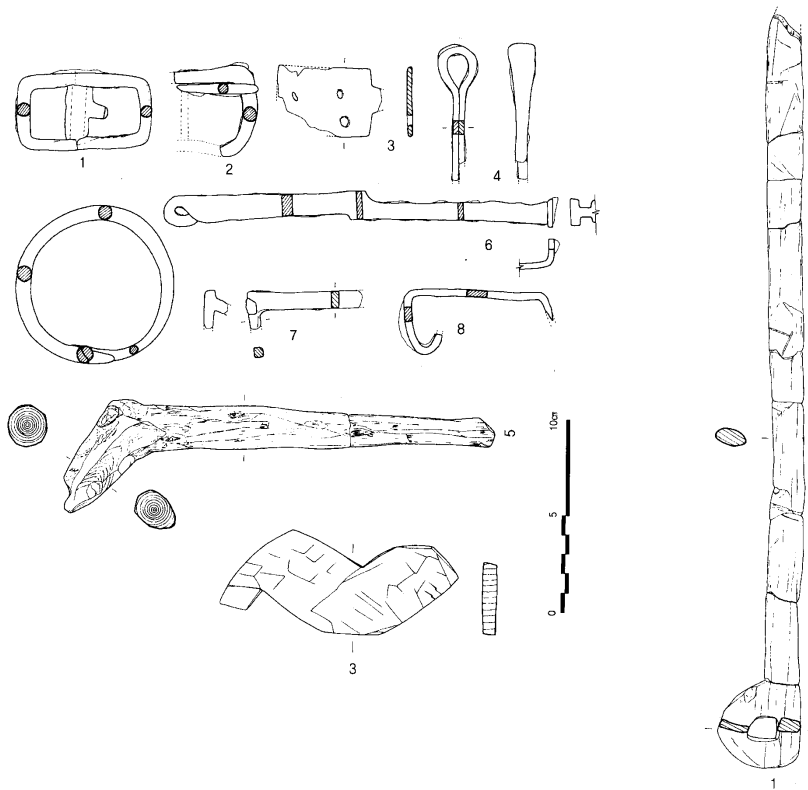


그림 18. 咸安 城山山城 集水池 內 出土 遺物

목검편, 조형목제품, 조두형목제품 등이 왜 저수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배경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집수정이 물을 모으는 역할도 하겠지만 성산산성이 당시의 함안 치소로서 때로는 제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주된 제사 공간이 집수정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sup>357</sup>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살펴보면 함안의 진산은 여항산으로 군의 서남 오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성산산성이 위치한 조남산은 가야읍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산산성이 위치한 조남산부터 진산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항산은 함안과 지금의 마산시 진동(조선시대 진해현)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770m에 이르는 높은 산이어서 이 산의 정상에 축성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남의 이성산성이 당시 광주의 진산 검단산이 높고 험하여 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검단산의 지맥

<sup>357</sup>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2004, 『咸安 城山山城 II』; 2006, 『咸安 城山山城 III』.

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산성에 성을 축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함안의 성황사는 여단과 방향이 같은 현의 북쪽 오리에 있다고 하였다.<sup>367</sup>

#### 14) 기타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그림 19 : 영암 월출산의 천황봉은 삼국사기의 소사처로 기록된 이래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암군조에 성황사와 함께 월출산에 제사지냈다고 기록에 남아 있다. 시굴조사 결과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제사관련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토기류에는 주로 접시·완이 대부분이며 향로 뚜껑편과 돌출문양장식을 한 이형토기와 토제마, 철제마의 출토는 제사유적임을 입증해 준다. 출토된 자기는 11~12세기대의 고급 청자류와 조질 녹청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층위와 시대적·조형적 차이가 없이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자와 녹청자에서 동일 기종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제사집단의 차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한편 11~12세기대의 유물만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제사 장소의 이동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월출산에서는 신라통일기 이후 계속적인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7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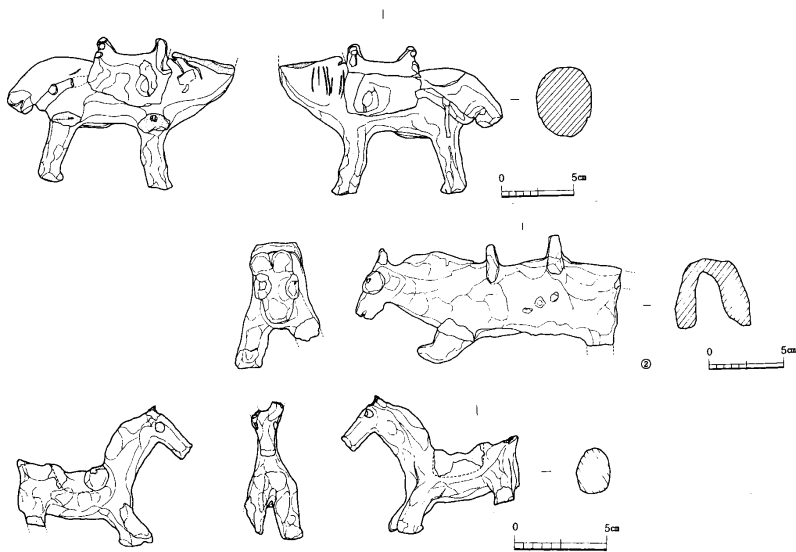


그림 19.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內 出土遺物

<sup>367</sup> 『新增東國輿地勝覽』 咸安郡, “山川 餘航山 在郡西南五里鎮山 祠廟 城隍祠 在郡北五里。”

<sup>377</sup> 木浦大學校 博物館·靈巖郡, 1996,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木浦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第39冊.

#부여 논치제사유적 그림 20·21·22 : 논치유적은 부여군 구룡면 소재 해발 76m의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시대 축조한 산성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유적이 위치한 산은 구룡평야와 맞붙어 위치하고 있으면서 금강과 지근거리 에 위치하여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조망되고 있어 입지면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논치유적에서는 도로시설로 인하여 파괴되었으나 동서-남북으로 길이 232m, 폭 10m 내외의 가장자리 장소에서 제사혈 15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제사혈은 당시 지표상의 자연 요철면을 이용하였으며 구덩이를 파고 토기, 철기를 파쇄하는 의례행위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위제사행위의 내용은 곡식을 담은 용기를 주먹돌 크기의 강자갈 또는 산돌을 던져 파쇄하거나 용기를 30cm×40cm 정도의 멧돌에 내리쳐 깨는 방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기 파쇄의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목탄, 탄화미, 소토, 강자갈, 할석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례행위 다음에는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부 채층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산 아래 쪽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 자연적인 부식토층을 형성하였다. 이 논치유적은 4세기 말 경의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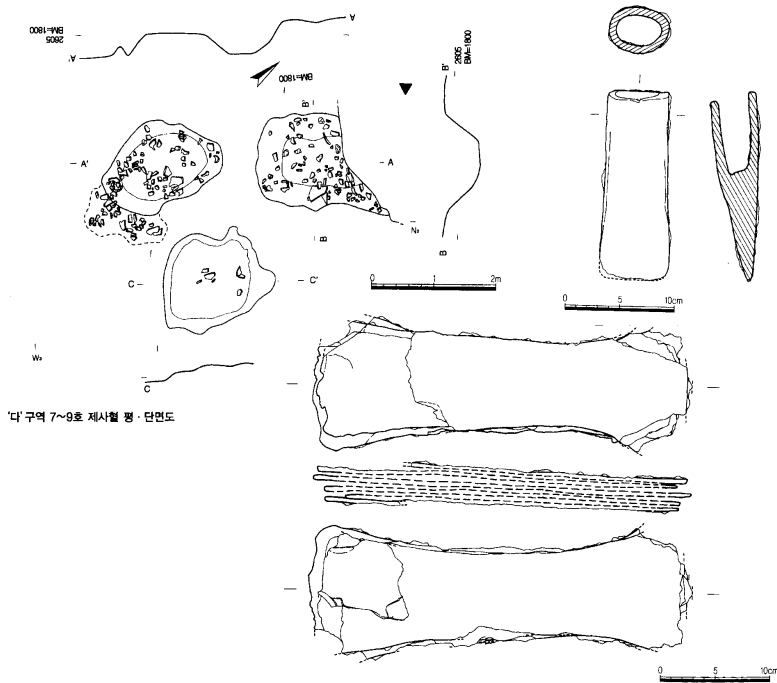


그림 20. 扶餘 論峙祭祀遺蹟 祭祀穴 配置圖 및 出土遺物(도끼, 鐵鋌)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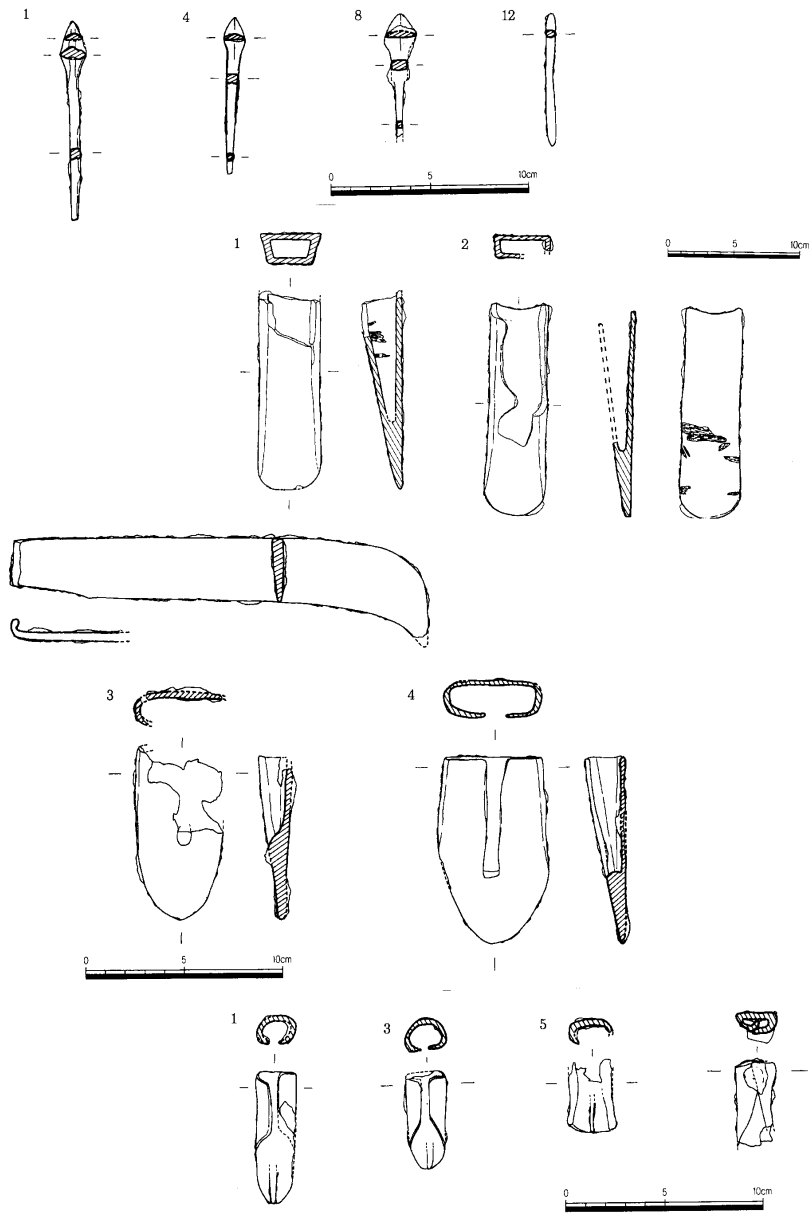


그림 21. 扶餘 論峙祭祀遺蹟 祭祀穴 內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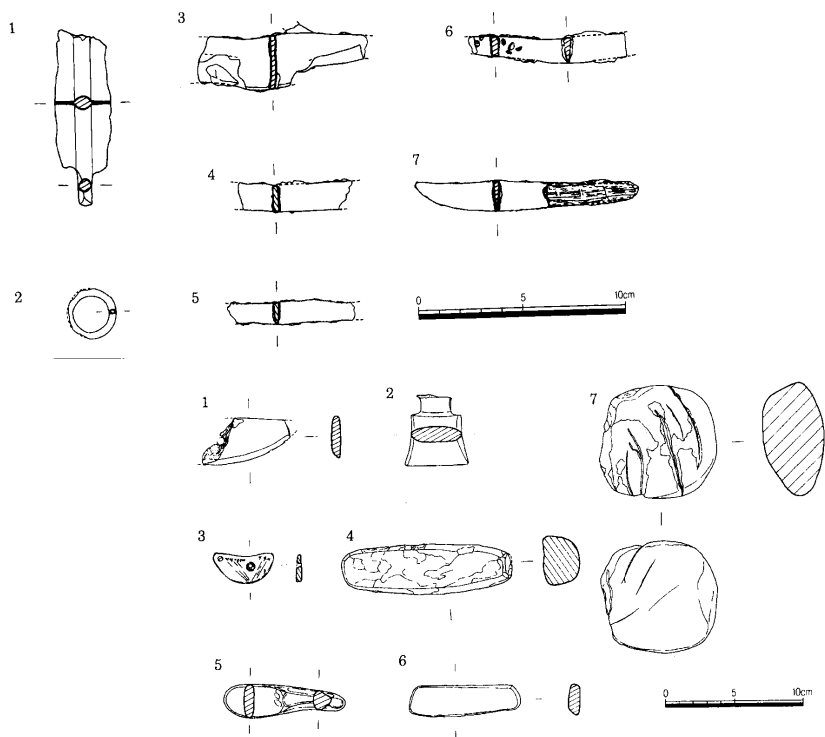


그림 22. 扶餘 論峙祭祀遺蹟 祭祀穴 內 出土遺物

로 철검, 철부와 같은 농공구의 비중이 높은 점을 통해 볼 때 농경의례가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천신제사를 통하여 내적으로 정치적 구심점을 가지며 주민의 결속력을 더해 가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박자나 남근 등이 수습되고 있는 것은 장인집단, 다산신앙을 기원하는 풍습과 농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우제도 이곳에서 행해진 것을 의미하므로 복합적인 차원의 기원 장소라고 하였다.<sup>38)</sup> 이러한 제사유적은 삼국시대 이래로 당시의 농경과 관련하여 산천에 대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생각한다.

38) 國立扶餘博物館·大田地方國土管理廳, 2007, 『扶餘 論峙祭祀遺蹟』扶餘九龍迂廻道路事業區間內,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查報告書 第12冊.

## 2. 소결

지금까지 예를 든 산성의 공통점을 작은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성이 축조된 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하남 이성산성이나 함안 이성산성의 경우처럼 크게 보아 진산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충주산성이나 양성산성의 경우처럼 조선시대에 들어서 지리지에 나타난 진산과는 방향이 달라 도저히 진산의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적조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축조된 성임을 보여주고 있고 진산이 지방세력의 변화 또는 치소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면 크게 보아 축조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산으로 비추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결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는 위치는 집수정, 건물지, 수혈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있다. 집수정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칼이나 화살촉, 재갈, 도끼, 가위 등 철제유물과 조형목기, 방망이, 목간 등 목제유물이 많다. 건물지나 건물지의 부근에서는 토제나 철제 말, 복골, 초두, 살포, 따비 등이 많이 출토된다. 아직 이 방면에 대한 연구도 일천하고 필자도 식견이 낮아 각각의 유물들이 어떤 상징성을 대신하여 제물로 헌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마구는 말이 희생으로 채택된 예가 기록에 남아 있고<sup>39)</sup> 말은 토제나 철제 말들이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므로 말을 대신하여 마구를 집수정에 투기하였으며 그 대상은 집수정 내에 살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용왕이었거나 산에 살고 있는 산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수정 내에 용왕이 살고 있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진산이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데 비를 주관하는 영물은 용으로 믿었고 용과 관련한 기우제 기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건물지와 그 부근, 또는 건물지로 보는 유구 내부에 있는 수혈에서 마노산성의 경우처럼 호등이나, 가위, 초두, 농기구 등이 출토되는 경우이다. 이런 유물들은 건물지가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여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덩이를 파고 앞서 예를 든 유물을 제물로 묻은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다면 불규칙한 수혈 속에서 유물이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유물이 출토되는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39) 『三國遺事』卷一 紀異二 太宗春秋公, “...新羅別記云 文虎王即位五年乙丑秋八月庚子 王親統大兵 幸熊津城 會假王扶餘隆作壇 刑白馬而盟 先祀天神及山川之靈 然後歃血爲文而盟曰...”

리고 성 내에서 자주 출토되는 농경구도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은 결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예를 든 산성이 대부분 당시에는 치소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경에 관한 제사를 지낸 결과로 농경구를 매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산에서 지낸 제사의 과정은 부여 논치 제사유적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논치 제사유적은 산의 정상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결과로 남은 것으로 제사혈은 자연 요철면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토기, 철기를 파쇄하는 의례행위를 시행하여 당시의 산천에 대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치유적에서는 철검, 철부와 같은 농공구의 비중이 높아 다른 산성에서 출토된 농경구가 당시 집수정이나 산에 기거하던 비나 풍요를 주관하던 용왕신에게 받쳐진 제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농경구는 설봉산성이나 반월산성, 부소산성, 양성산성, 마노산성 등에서 왜 농경구가 발견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부여 논치 제사유적이 앞서 지적한 산성들보다 시기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생활풍습이 몇 백년의 차이를 두고 크게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여 논치 제사유적이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구릉의 정상에서 농경을 통한 풍요를 기원하였던 제사의 행위로 형성된 유적이라면 산성 내에서 이루어진 제사행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문헌검토

#### 1. 신라의 산천제 - 『三國史記』祭祀條를 중심으로

이상과 같이 제사유구가 발견된 성은 모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축조된 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신라본기 제사지 신라조에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신라 국가체제에 대하여 소략하나마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에 기본적인 사료가 되는데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동안 산성 내에서 제사를 지낸 원인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므로 전문을 실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誌 第一 祭祀・樂

祭祀

1)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以享之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平百濟高句麗有大功德 竝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五廟 至第三十七代宣德王 立社稷壇 又見於祀典 皆境內山川 而不及天地者 蓋以王制曰 天子七廟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又曰 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 名山大川之在其地者是故 不敢越禮而行之者歟 然其檀堂之高下-壇門之內外 次位之尊卑 陳設登降之節 尊爵籩豆 牲牢冊祝之禮 不可得而推也 但粗記其大略云爾。

2) 一年六祭五廟 謂正月二日・五日・五月五日・七月上旬・八月一日・十五日

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楮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 立夏後亥日 新城北門祭中農 立秋後亥日 蒜園祭後農 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 立夏後申日 卓渚祭雨師 立秋後辰日 本彼遊村祭靈星 檢諸禮典 只祭先農 無中農 後農

3)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大祀. 三山 一奈歷(習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大城郡)。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鷄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四鎮. 東溫沫勳(牙谷停) 南海恥也里(一云悉帝, 推火郡) 西加耶岬岳(馬尸山郡), 北熊谷岳(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一云斤烏兄邊, 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 四瀆. 東吐只河(一云槩浦, 退火郡), 南黃山河(歆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漢山河(漢山州)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已郡), 北兄山城(大城郡), 清海鎮(助音島)。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遼城郡), 花岳(斤平郡), 錯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見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 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岩山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

4)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良門, 三習比門, 四王后梯門。

部庭祭. 梁部。

四川上祭. 一犬首, 二文熱林, 三青淵, 四樸樹.  
 文熱林行日月祭.  
 靈廟寺南行五星祭.  
 惠樹行祈雨祭.  
 四大道祭. 東古里, 南簷并樹, 西渚樹, 北活併岐.  
 壓丘祭.  
 壁氣祭.  
 上件, 或因別制, 或因水旱, 而行之者也.<sup>40)</sup>

위의 기사는 크게 1)과 2), 3), 4)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에서는 종묘제와 사직단, 신라 사전에 대한 찬자의 견해를 기술한 다음 『禮記』 왕제편을 인용하여 신라의 제사가 천자의 제사를 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신라는 중국의 제후국이므로 원론적인 규정인 예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라가 지낼 수 있는 제사는 제후오묘제와 사직제 그리고 경내의 산천제이므로 신라는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제단의 높고 낮음이나 담과 문의 안팎의 위치, 신위 순서의 준비 구분, 제상의 차림과 올리고 내림의 절차, 술잔·제기·제물·축문 등의 예식에 대하여는 추측할 수 없고 다만 그 대충을 적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묘제, 팔석제, 선농제, 중농제, 후농제, 풍백제, 우사제, 영성제 등 제일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들 제사는 조상에 대한 제사나 농경제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는 당시 신라의 집권세력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였을 것이며 농경제사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이 되는 농사가 순조롭기를 기원하는 제사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번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사로 대·중·소사로 구분된 산천제사와 별도의 규정에 의한 비정기적인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천제와 관련하여 문헌사에서 많은 이미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산천제를 지내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41)</sup>

40) 『삼국사기』 인용문에서 太字는 문단 구분을 위한 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사기 1. 감교 원문편을 따랐다.

41) 洪淳利, 1985, 『新羅の三山五嶽と新羅人の山嶽崇拜』,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歴史編, 平凡社, 247~264쪽; 文璟鉉, 1991, 『新羅人の山嶽崇拜와 山神』, 『新羅思想의 再照明』(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崔光植, 1994, 『國家祭祀의 祭場-新羅의 大祀··中祀··小祀·를 中心으로』, 『古代韓國의 國家와 祭祀』 韓國社會研究叢書 5, 한길사, 298~323쪽; 金杜珍, 1999, 『新羅의 宗廟와 名山大川의 祭祀』,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346~375쪽; 羅喜

먼저 大祀의 三山은 경주를 방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에 해당되므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전통적인 제사집단의 정치적인 안배를 기본으로 하여 신앙적인 의미와 전략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42)</sup> 그리고 中祀의 五嶽은 대성군에 있는 토함산(동쪽), 청주(진주)에 있는 지리산(남쪽), 웅천주(공주)의 계룡산(서쪽), 날이군(삼척)의 태백산(북쪽), 중앙에는 압록군(대구)의 부악(공산)이라고 하였다. 오악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신라영토의 사방과 중앙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라가 통일한 이후 확장된 영토를 둘러가며 국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인 공산이 신라에 편입된 압록국을 상징하듯 오악은 신라에 정복되어 들어오기 이전의 어떤 정치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43)</sup> 또한 四鎭·四海·四瀆도 오악과 마찬가지로 삼국통일과 관련된 영토관념의 표현이며 신라의 동·서·남·북의 사변에 원칙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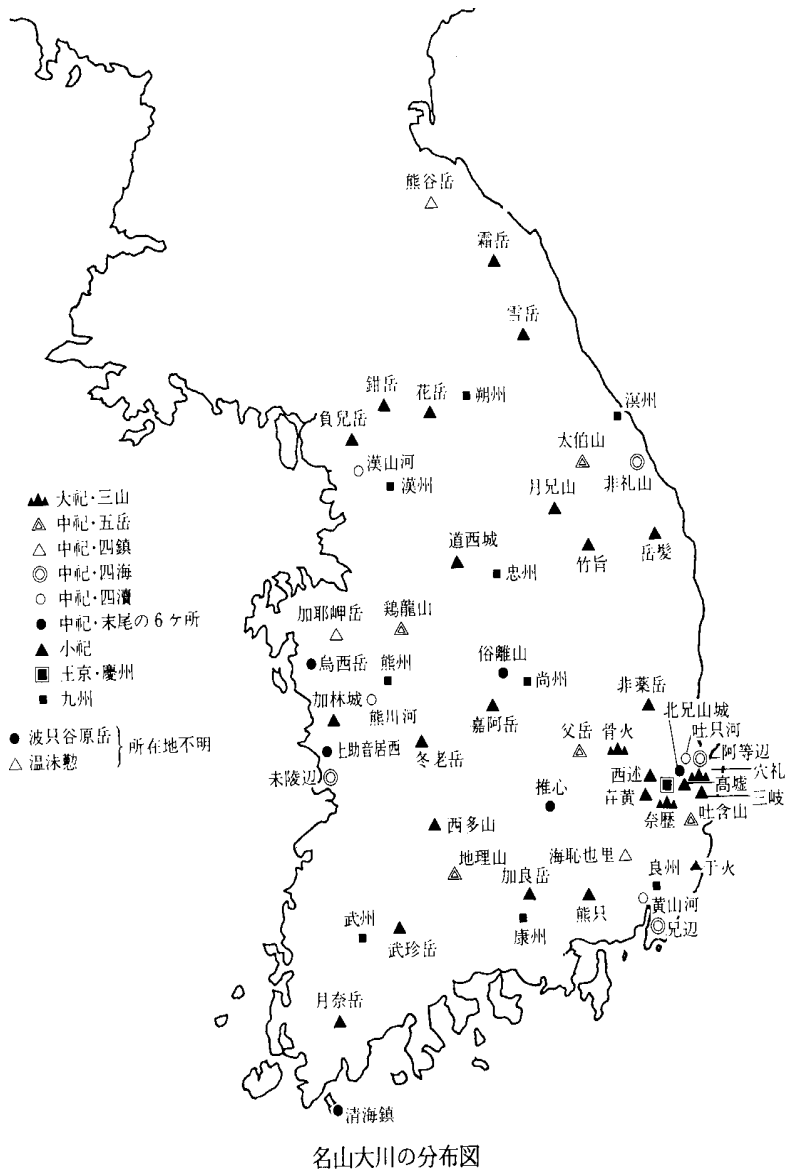
山川祭祀의 마지막은 小祀로서 모두 24개소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산의 명칭으로 보이는 것은 상악, 설악, 화악, 감악, 부아악, 월내악, 무진악, 서다산, 월형산, 동노악, 가아악, 파지곡원악, 비악악, 가량악 등 14개소, 성을 나타낸 것은 도서성과 가림성 등 2개소지만 도서성은 도살성에 비정되어 충북 괴산군 도안면의 니성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죽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읍 대강면에 걸쳐 있는 죽령, 웅지는 경남 진해시 대장동의 웅산, 악밭은 발악이라고도 하며 우회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서쪽의 운암산, 삼기는 경주 안강읍과 건국면 사이의 금곡산, 고허는 사랑에 있다하였는데 사랑은 돌산고허촌으로 경주 남산 서북쪽 일대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진평왕 48년(626)조에 고허성의 축성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가림성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성흥산성으로 비정되므로 소사는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4)</sup>

羅, 『新羅의 國家祭祀』 솔벗 한국학 총서 1, 知識産業社, 27~68쪽.

42) 대사 삼산의 명칭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유신이 고구려의 첩자 백석을 의심 없이 따라가자 이를 저지한 신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다(『三國遺事』 卷第一 奇異 第二 金庾信, “娘等便現神形曰 我等奈林穴禮骨火等三所護國之神.”)

43) 李基白, 1974, 『新羅 五嶽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社會政治史研究』, 一潮閣, 195~207쪽.

44) 소사의 위치 비정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4 註釋編(하); 崔光植, 1994, 『國家祭祀의 祭場-新羅의 大祀·中祀·小祀·를 中心으로』, 『古代韓國의 國家와 祭祀』, 한길사, 298~323쪽을 참고하였다.



지도 1. 名山大川の 分布圖<sup>45)</sup>

45) 濱田耕策, 2002,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全제.

다음은 別制와 水旱 조절을 위한 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사성문제와 부정제, 사천상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사는 민속적인 제사로 일정한 시기가 없이 때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일단은 사전에 편제해 두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46)</sup> 사성문제는 문의 출입을 단속 하면서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한 주술적 제사로 중국 고대부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신라에서는 악귀를 막기 위하여 처용의 모습을 문에 붙여 벽사진경을 기원하였다고 한다.<sup>47)</sup> 그러므로 사대도제는 제의적 공간에서 볼 때 각기 관문적 성격을 띤 성문이나 대로 또는 경계지에서 악기를 제압하고자 한 벽사의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의들은 비정기적인 제제로 거행되었다는 것을 볼 때 출병이나 전염병·수재·한재·충재 등으로 국난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거행된 원적 퇴치나 벽사적 행사로서 주로 토착신앙에 바탕을 둔 무속적 의례들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48)</sup>

그리고 부정제는 양부의 뜰에서 거행하였다고 하였는데 6부를 대표하여 양부의 뜰에서 어떠한 형식의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49)</sup> 네 군데에서 지냈던 천상제는 고려시대 가뭄 조절을 위하여 천상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앞서 전문을 실은 삼국사기 제사 조의 마지막 구절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사 장소가 견수곡, 문열림, 청연, 박수인데 숲이나 못, 나무는 신이 강림하는 신성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수에서 지내는 기우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sup>50)</sup>

사대도제는 왕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나가는 큰 길에서 지내는 제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귀매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였다는 일본의 도향제와 비슷한 제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51)</sup> 대도제의 제장이 침병수, 저수,

46) 辛鍾遠, 1992, 『新羅初期 佛教史研究』, 民族社, 88~92쪽.

47) 『三國遺事』 奇異 第二 處容郎 望海寺, “...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盡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

48) 황경숙, 2000,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66~70쪽.

49)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솔벗 한국학총서 1, 지식산업사, 27~68쪽.

50) 신라 원성왕은 북천신에 제사를 지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元聖大王,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滄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天鏡林과 三川岐, 龍宮南, 龍宮北, 沙川尾, 神巖林, 婿請由 등 숲과 내의 이름을 단 사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고대 신라인들의 산천숭배신앙이 불교와 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신선희, 2006, 『한국 고대극장의 역사-우리 옛 극장의 기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서』, 열화당, 93~96쪽).

51) 고대 일본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경성의 사방에서 지내던 제사로서 神祇命에 정해진 제사였다. 疾疫이 있을 때 전국에서 행하였는데 令義解에 의하면 鬼魅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성으로 들어오는 사방의 길에서 지낸 제사를 말한다. 延喜式的 同祭祝詞에 의하면

활병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큰 나무가 서 있는 갈림길에서 여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구하거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황당과 유사한 성격의 제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52)</sup>

다음으로 압구제는 분명치 않은데 ‘구’가 무덤의 봉분을 뜻한다면 ‘압구’는 ‘봉토를 누른다’는 뜻이니 압구제는 분구 축조의식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와<sup>53)</sup> 『주례』에서 “큰 무덤과 쌓여진 시신의 기운이 여귀가 되어 모든 백성들에게 재해를 입히니 나례를 거행한다.” 것과 대비하여 무덤의 사귀들을 제압하기 위한 의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sup>54)</sup> 또한 惡氣가 모이는 것으로 보이는 구릉의 제액을 제거하는 軼祭로 보고 고려시대 壓兵祭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sup>55)</sup> 이것은 제사

八衢比古, 八衢比賣, 久那斗 등의 三神祭祀에 鬼魅와 妖物の 침입을 막기 위해 幣帛을 받쳤는데 道饗祭는 鑊火祭와 함께 卜部에서 주관한 제사로 주술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다(『日本古代の 의례와 祭祀・信仰』(和田萃, 1995, 塙書房刊) 중 제IV장 古代祭祀의 諸相 제3. 夕占と道饗祭 四. 道饗祭, 343~347쪽; 1994, 『日本史大事典』 6 道饗祭 沼部春友, 平凡社). 그리고 대도제를 지내는 장소가 침병수, 저수, 활병기인 것은 큰 나무가 서 있는 갈림길에서 여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구하거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황당과 유사한 성격의 제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종철·박호원, 1994, 『서낭당』, 대원사).

52) 최근 부산 기장의 고촌유적 도로유구 및 구상유구에서는 도제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었다. 도로유구는 고촌유적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유적 내 서쪽 구릉의 말단부와 중앙 계곡부가 지형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따라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되었다. 규모는 총연장 300m 이상이며, 노폭은 지형에 따라 2.2m~6m이다. 도로의 노면은 1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서 포장하였으며, 노면에는 폭 170cm의 車輪痕이 확인된다. 노면에 나타난 차륜흔으로 볼 때 물자 수송을 위해 바퀴 폭 170cm의 수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도로유구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기편과 와편이 수습되었다. 그 중에는 같은 문양(同范)의 단편연화문막새가 5점 수습되었다. 도로유구와 직접 중복된 유구는 하층의 굴립주 건물지·제2호 구상유구, 상층의 통일신라시대 담장 등이 있어 도로의 사용연대를 가늠할 수 있다. 도로의 사용연대는 유물과 중복관계를 통해 추정해 보면 상한은 6세기 후반, 하한은 7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로유구가 저습지 니토층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제2호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제2호 구상유구는 주변의 니토층과 확연히 구분되는 회갈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으며 도로유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로유구의 자갈 노면에 의해 어깨선부분이 덮여 있는 상태로 도로유구와 제2 구상유구 사이에 간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기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2 구상유구 내부에서는 녹유개·녹유대부직구호·완·대호·와편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토기류는 완형이 많고, 일부 토기에서는 인위적인 파손흔적을 보이는 것이 있다. 이처럼 제2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고촌유적 전체에서 출토된 동시기의 유물 중에서도 좁은 범위 내에서 완형의 비율이 높고, 연유도기와 같이 제품의 품질 또한 최상급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유물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시에 매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매납 행위는 당시의 도로 축조와 관련된 일련의 의례와 관련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5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4 註釋篇(하), 37쪽.

54) 황경숙, 앞의 책, 67~68쪽.

공간이자 제사의 대상인 구릉을 경계성의 범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마을의 경계가 되는 구릉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곳을 통과할 때 돌을 엮어 액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서낭제와 관련이 있거나<sup>56)</sup> 산에 주둔하던 군사가 큰물이 나면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릉을 파거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구릉을 향해 제사를 올리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壁氣祭는 벽기가 辟邪와 마찬가지로 邪鬼를 물리친다는 뜻이므로 벽기제는 벽사의식의 일종으로 보아 중국에서 각 절기가 시작되는 立春, 立夏, 立秋, 立冬 날에 수도의 四郊에서 각 계절의 오제를 제사하며 계절의 기운을 맞이하는 迎氣祭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사계절의 악한 기운을 쫓는 제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시의 惡鬼를 쫓는 候禳祭로 水害나 旱災 같은 재해는 하늘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머물러 있는 사기를 물리치고자 한 것으로 사시마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자 했던 儺禮의 본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신라에서는 산천에 제사 지내는 산천제나 사성문제, 사천상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등을 국가제사로 정하여 지낼 만큼 중요한 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경주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지방에서 어떤 제사를 지냈는지 알 길은 전혀 없으나 지방에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제사와 비슷한 체제를 갖추고 산천에 제사를 지냈을 것이며 사성문제나 사대도제를 지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사가 치러졌던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사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로국 및 신라의 핵심이었던 지역의 지신이었으며 호국신이었고<sup>57)</sup> 중사는 신라 특히 통일신라의 영토개념을 상징화하여 중요한 국방 거점에 위치한 지신으로 구성되었다. 소사는 통일신라 이전의 지방세력의 조상신이 거의 그대로 신라의 사전 속에 편입되었고 소사가 치러졌던 산은 거의 모두 그 지역의 진산으로 되어 있어 소사의 제장은 지역방어를 목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5) 발제를 압병제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남아 있다. 발제는 길을 떠나면서 무사하기를 도로신에게 비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禱祭를 통해 師行과 戰勝을 기원하였는데 고려의 압병제는 마제와 같은 성격의 제사로 보았다(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제사』 고려사학연구총서 17, 경인문화사, 55~56쪽).

56) 김승찬, 1980, 『민속학산고』, 제일문화사, 52쪽.

57) 『三國遺事』卷五 感通七, “仙桃聖母隨喜佛事…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그리고 嶽·海·瀆은 嶽·鎮·海·瀆이라고도 한다. 악·진은 산악신인데 악은 오악 혹은 사악을 말하며 진은 진호하는 진산을 말한다. 독은 흔히 사독이라고 하며 발원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을 말한다.

## 2. 고려의 산천제 - 『高麗史』禮志를 중심으로

신라에서 산천제를 중시하였던 관념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기록이 소략한 신라의 산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의 산천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고려의 산천제는 성종 9년(990)에 이르러 개경 중심의 산천제를 완비하지만 그 이전에는 팔관회 체제 내에 포함되어 거행되거나 독자적으로 거행되었다. 고려시대의 산천제는 잡사로 분류되었는데 고려사 예지에는 산천제를 지낸 기사가 전하고 있다. 고려의 산천제는 제단에서도 행하여졌으나 이와는 별도로 신사에서 거행되었으며 거기에는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산천제는 기양 기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는데 특히 기우 기청을 위해 천상제라는 제의가 별도로 거행되었고 이러한 산천제는 개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행해졌다.

산천제의 목적은 먼저 전란이 발발하였을 때 산신이 신이함을 나타내어 이를 물리치고 이에 따라 전란이 일어나면 국토 수호를 위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sup>58)</sup> 그런데 산천의 도움으로 병란을 물리쳤다고 믿고 이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는 적지 않다. 거란의 침입을 서경 목덕산신과 감악산신이, 몽고의 침입을 월악산신이, 삼별초의 반란을 무등산신과 금성산신이 각각 국가를 도와 병란을 물리쳤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고종 41년 2월 신묘에서 산천신에게 고하기를 “...대개 국주의 산천이 사람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신의 도이오니 소우한 나라와 의지하는 사람을 어찌 능히 붙잡히 여겨 영원토록 보호하지 않으리까...”라고 하여<sup>59)</sup> 산천신은 사람에 의해 도가 행해지며 국가와 백성들이 산천신에 의지하는 바이므로 마땅히 산천신은 병란을 그치도록 도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무신정권기에 경주민의 항거를 진압하면서 태조전진, 용왕, 불, 산신, 천신, 태일 등에게 전승을 기원하고 있는데 산신에 대한 기원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반란군을 소탕하여 국가를 수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역의 산신에게 반란의 소탕을 기원하는 것은 산신이 그 지역의 수호신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기우의 목적으로 산천제를 지내게 된다. 산천신은 강우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용신도 기우의 대상이었다. 천상과 신묘 및 박연에서 지내는 것이 일차적인 기우제였다. 가뭄에 국왕은 먼저 백성을 구휼하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순서는 북쪽 교외에서 악·진·해·독과 모든 산천에 다음으로 종묘에 7일마다 제사를 지냈다. 평상시에 있어 산천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우였으며

58) 『高麗圖經』卷十七 祠宇 崧山廟.

59) 『高麗史』卷24 高宗 22년 11월 갑신조.

산천신은 강우나 지우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 수해가 나거나 한발 등의 재해가 있게 되면 산천신에게 제사하여 무사를 빌었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자연재해나 천변에 대하여 도량이나 산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수해가 나고 한발이 들거나 유행병이 돌아 재해가 있게 되면 산천신에게 제사를 올려 무사를 빌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전염병의 구제나 국왕의 구병을 위해서도 산천제가 거행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산천제는 신라처럼 대사 중사 소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예지 길례에 이른바 잡사로 분류되었다. 산천제는 산신제와 천상제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산천신은 강우와 호국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 밖에도 치병이나 재변에 대한 기양을 위해서도 제사를 올렸다. 특히 기우는 평상시에 산천제가 거행되었던 중요한 사유였다.<sup>60)</sup>

### 3) 鎭山의 성격 -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사실 진산이라는 용어가 지리지에 분명하게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慶尙道地理志』가 편찬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 즉 세종 14년(1432)에 『新撰八道地理志』, 단종 2년(1454)에 『世宗實錄地理志』, 성종 8년(1477) 『八道地理志』, 성종 12년(1481) 『東國輿地勝覽』을 거쳐 중종 25년(1530)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勝覽』)의 편찬으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지리적인 성격이 강조된 『勝覽』은 기존의 지리지에 각 분야에 시문을 삽입한 특별한 형식으로 편찬되었으며 중종 25년에 『勝覽』(55권)으로 편찬 인반되었다. 그리고 제1차 수찬본은 성종 17년(1486)에 이루어졌으며 제2차 수찬본은 연산군 5년(1499)에 이루어졌다. 『勝覽』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찬 증보를 함으로써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조선 전기의 다양한 주제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sup>61)</sup>

또한 『勝覽』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순으로 팔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각도의 군현은 沿革, 屬縣, 鎭管,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關防,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倉庫, 橋梁, 佛宇, 祀廟, 冢墓, 古蹟, 名宦, 人物, 題詠 項으로 編目되었으며 지역의 특징에 따라 가감은 있으나 중앙에서 일관된 규칙에 따라 편찬하여 수록 순서는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sup>60)</sup> 김철웅, 앞의 책, 83~127쪽.

<sup>61)</sup> 서인원, 2002, 『조선 초기 지리지 연구 -『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무악실학회총서 제15집, 혜안.

이 중 첫째 편목인 건치연혁은 대부분 삼국시대 이후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군명은 그 지역의 변천된 군명을 연혁의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형승은 산천 중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산천은 지형 특색을 위치와 고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인문지리적 요소 및 역사지리적 요소를 이전의 지리지에 비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성곽은 있는 지역에 한하여 파악하고 성곽명과 위치, 성곽 재료, 크기 등과 군창의 유무를 밝히고 있고 관방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대에 대한 파악으로 영·진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그 영이나 진과 관계된 고사를 실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봉수는 통신기관으로서 먼 거리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므로 봉수명과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였다. 사묘는 사직단이나 향교의 문묘, 성황사, 여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성황사 등의 파악은 최소한 민간신앙적 요소까지 파악한 것으로 지리지에 가지는 역사지리적인 요소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적은 옛 성곽 등 유적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직촌이 된 속현, 향, 소, 부곡 등의 흔적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勝覽』에 기록된 각 군현의 건치연혁, 산천, 사묘, 고적항 등을 살펴보면 『勝覽』이 편찬될 당시 군현의 진산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군현명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勝覽』을 통해 나타난 성황사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그 성격 등을 통하여 진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勝覽』의 경상도편에 나타난 각 군현의 건치연혁, 군명, 산천, 성곽, 사묘, 고적항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 6.<sup>62)</sup>

62)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69,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이십일권~제삼십이권 III·IV 고전국역총서 42·43. 승람에 기록된 각 군현은 건치연혁, 군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역원, 교량, 불우, 사묘, 총묘, 고적, 명환, 인물, 우거, 제영항 등으로 편목하였다. 군현에 따라 성곽이나 교량항은 빠지기도 하지만 건치연혁이나 형승, 산천, 사묘는 반드시 편목하였다. 편찬 항목의 설정이유는 승람의 서문에서 밝히기를 “경도에서 각도에 이르기까지 연혁에 다름이 있는 것과 풍속의 같지 않음이며 높은 것으로는 묘사·능침과 엄한 것으로는 궁궐과 관청이요, 학교는 교양하는 곳이요, 토산은 의식의 근원이요, 인물을 논하는 데는 효자·열녀를 으뜸으로 삼았고, 형승을 말하는 데는 성곽·산천을 요긴한 것으로 삼았고 누·정·사·사·역·원·교량이며 명현의 사적과 문인의 제영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고 은미한 것도 갖추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표로 작성한 항목 가운데 군명항은 삼국시대 이후 변경되어 온 지명을 기재함으로써 이명 등 지명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치연혁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 산천의 진산, 그리고 읍성과 고대의 성곽을 발췌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사묘항의 성황사는 방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진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췌하였고 고적항에는 조선시대 이전의 성곽에 대하여 따로 난을 만들어 고대의 치소와 진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표 1. 경주진관

鎭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慶州	慶州府		狼山在府東九里鎭山 吐舍山,金剛山,仙桃山,含月山,兄山, 溫之淵在安康縣東二十四里有龍堂天早禱雨有應	邑城石築周四千七十五尺高十二尺 內有井八十 富山城	城隍祠在府東七里	楊山蘿井,閼英井,金城井,雞羅井, 金城,月城,滿月城,明活城,南山城,關門城	鎭山과 城隍祠의 方向이 동일. (鎭山東으로 9里)
	蔚山郡	屈阿火 蔚州 鶴城 火城	無里龍山在郡東二十四里鎭山 立巖淵在郡西二十里彥陽縣南川及鷲城川合流爲此淵 有岩立水中如塔其水黝碧世傳有龍天早禱雨有應 于弗山在郡西五十一里	邑城石築周三千六百三十五尺 高十尺內有井八成火辛丑築	城隍祠在古邑城內卽戒邊神也 于弗山神祠祀典載小祀 每春秋降香祝以祭天早禱雨 輒應	神鶴城 古邑城	古邑城에 城隍堂이 위치.
	梁山郡	敵良州 良州 梁州	城隍山在郡東北五里鎭山伽倻津一名玉池淵在郡西 四十里黃山江上流我世宗朝黃龍見津中天早禱雨 輒應	邑城石築周三千七百十尺高十三尺 內有井五池一 城隍山城石築周四千三百六十八尺高六尺內有井六池二有軍倉	城隍祠世傳金忍訓佐高麗 太祖位至門下左侍中 死爲祠神 伽倻津祠	古山城在郡東三里石築 古長城在黃山江東北岸石土雜築	城隍山이 鎭山(鎭山 東北으로 5里)
	永川郡	切也火 臨臯 永州 益陽	母子山在郡北九十里鎭山	[邑城]없음 [烽燧]城隍堂烽燧在郡西十里	城隍祠在郡西五里	永州城在南亭院西 古邑城在郡西二里	邑城 없음, 鎭山 北90里.
	興海郡	退火彌秩夫城義昌 曲江鰲山	禱陰山在郡西五里鎭山, 望昌山在郡南二里	邑城石築周一千四百九十三尺 高十三尺內有井三	城隍祠在郡南二里	彌秩夫城周官六翼高麗太祖十三年 北彌秩夫城主萱達與南彌秩夫城主 來降二彌秩夫合爲興海郡 阿等邊一云斤烏兄邊新羅祀東海神 于此載中祀 槩浦一云吐只河新羅東濱載中祀疑 卽曲江也 望昌山城土築周六千尺內有一池三 泉今廢	彌秩夫城, 鎭山西五里 城隍祠南二里
	東萊縣	葦山萊山居漆山 蓬萊蓬山	輪山在縣北八里鎭山, 黃嶺山在縣南五里	邑城石築周三千九百十尺高十三 尺內有六井	城隍祠在縣東二里 絕影島神祠毛等邊神祠 俱在東平縣南一里 古智島神祠在縣南二十三 里以石爲壇古禱雨有 徵今廢	古邑城在海雲浦東南石築西北土築 周四千四百三十尺今頽圯 東平縣城在縣南二十里東南石築西 北土築周三千五百八尺今頽圯	鎭山北八里 城隍祠東二里
	清河縣	阿兮 海阿 德城	呼鶴山在縣西九里鎭山,神龜山在縣北十里有三龍湫 早禱在應,龍山在縣南六里	邑城石築周一千三百五十三尺 高九尺內有二井	城隍祠在龍山	古清河在今治南十里	德城,古清河南十里-龍山南 六里 城隍祠 와 방향 동일.
	延日縣	斤烏支臨汀烏川 烏良友	雲梯山在縣南十二里鎭山	邑城石築周二千九百四十尺高 十二尺內有三井	城隍祠在縣東八里	大王岩在雲梯山頂距縣南十里岩泐 間有泉沸出歲早禱雨輒應 日月池在縣東十里都祈野 古邑城在縣北七里土築周九百尺今 廢古縣城在縣東十五里土築周一千 尺今廢	雲梯山頂大王岩, 古縣城東十五里 - 城隍祠 東八里
	長鬐縣	只沓 鬐立 峯山	巨山卽峯山縣治所自舊城移置于此山之頂在縣西二里 鎭山	邑城石築周二千九百八十尺內 有四井二池	城隍祠在縣南五里	舊邑城在縣南二里石築周四百六十八尺高十二尺內有泉二	巨山鎭山,舊邑城南二里-城隍祠南五里
	機張縣	甲火良谷 車城	炭山在縣西二里鎭山	邑城石築周三千一百九十七尺 高十二尺	城隍祠在縣北四里	古邑城在今治東北五里土築周三千 二百八尺	車城,古邑城東北五里-城隍祠 北四里
彥陽縣	居知火嶽陽嶽山	高嶽山在縣北十里鎭山	邑城土築周一千四百九十八尺 內有井二新增弘治庚申改石築 周三千六十四尺高十三尺內有 三井	城隍祠在縣北七里		郡名嶽山,鎭山高嶽山-北十里 城隍祠 北七里	



표 2. 안동진관

鎮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安東	安東大都護府	古陀耶古昌永嘉吉州 福州綾羅地平石陵一 界花山古藏昌寧古寧	清涼山在才山縣西瓶山在府北十里文筆山一名葛那 山在府南二十三里世傳新羅金生學書于此山仍名之	邑城石築周二千九百四十七尺高八 尺內有泉十八渠一	城隍祠在府東六里	清涼山城石築周一千三百五十尺內有七井 二溪今廢	鎮山 記錄 없음, 清涼山城
	寧海都護府	于尸有隣禮州丹陽 德原	龍頭山在府西二十里其頂有井水旱無增減俗傳初山頂 一葦長至天乃鑿井其地水甚清澈邪人照之則變爲泥色 山城山在府西十三里	邑城石築周一千二百七十八尺 高十三尺內有三井一池英陽 山城在府西六十六里石築周二 千七十八尺高七尺高險有軍倉	城隍祠在府東六里諺稱八鈴之 神		鎮山 記錄 없음, 英陽山城西六十六里
	青松都護府	青已積善舍伊雲鳳 靑舍靑賁	放光山在府北二里鎮山 周房山在府東三十一里	[邑城]없음	城隍祠在府西一里	周房山城石築周一千四百五十尺三 面天作之險內有二溪	邑城 없음 鎮山에 山城 위치
	醴泉郡	水酒甫州基陽清河 襄陽	德逢山在郡西三里鎮山山上有黑鷹城 鵲城山在郡北七 十五里	德峯山城石築周四千八十尺高 十尺六寸內有二井一池有軍倉	城隍祠在德峯山	鵲城周六百十尺今廢城西有石門高 十一尺廣十二尺三面皆岩石	鎮山에 山城과 城隍祠 위치
	榮川郡	奈巴奈靈剛州順安 榮州龜城	鐵吞山在郡北一里鎮山龜山在郡西南一里郡之舊號龜 城以此	龜山城石築周一千二百八十一 尺高九尺內有井又有軍倉	城隍祠在郡北七里		郡의 옛이름이 龜城에서 비롯 되었다고 기록.
	豐基郡	基本基州基川永定 安定	竹嶺在郡西二十四里新羅阿達王五年始開路兜率城山 在竹嶺下夫老城山在殷薑縣峯上有池		城隍祠在郡西三里	登降城在郡西五里上乙谷城在殷薑 縣南三十四里周九百八十步高五尺內有十 泉一溪小白山古城山頂有古石城周一千四 百二十八尺	鎮山 記錄 없음. 登降城西五里 - 城隍祠西三里
	義城縣	召文 聞韶	金城山在縣南二十五里船巖山在縣南五十里義興縣 界穴洞在舍谷里距縣東二十五里岩穴深邃疑有陰獸 秘藏可愕崴早有禱輒鷹穿巖在縣北二十里俯臨深淵 有穴在岩中奇怪異常遇早禱雨輒鷹	[邑城]없음	城隍祠在縣北三里	召文國古基在縣南二十五里今稱召 文里邑城土築周四千七百二十尺今 廢黃山城在縣東四十里西面石築周 四十五尺今廢東南北皆絕壁金城山 古城石築周九千一百尺高三尺高險內有 四泉	鎮山 記錄 없음. 邑城 없음. 召文國과 古邑城 위치 기록 없음.
	盈德縣	也尸忽 野城	無芑山在縣北二里鎮山 達老山在縣西三十七里	邑城石築周一千三百九十七尺 高十二尺內有一井一池	城隍祠在縣北二里	古城在邑城東門外土築周三千三百 尺今廢達老山城石築周八千三百五 十六尺	郡名 - 野城 鎮山과 城隍祠 거리 방향 일치. 古邑城土城
	奉化縣	古斯馬 鳳城 玉馬	金輪峯在縣北二里鎮山文殊山在縣北三十里龍帖山 在縣西十三里龍淵在太白山下值早禱雨有驗	[邑城]없음 龍帖山烽燧	城隍祠在縣西三里		郡名 - 鳳城龍帖山과 城隍祠 방향 동일. 고적없음.
	眞寶縣	漆巴火助攬眞安甫城 載岩靑賁眞海	南角山在縣南八里神漢川在縣北一里其源出寧海府 日月山經安東府爲瓦釜灘合于大項津南岸石壁四百餘 尺因以爲城基而未之築	[邑城]없음 [烽燧]南角山烽燧	城隍祠在縣北二里		郡名 - 甫城 城隍祠와 神漢川의 방향 동일.
	軍威縣	奴同覓 赤羅	馬井山在縣東南五里鎮山祈雨峯在縣西七里有古祈雨 壇故名	[邑城]없음 [烽燧]馬井山烽燧	城隍祠在縣東五里		鎮山 馬井山에 烽燧와 城隍祠
	比安縣	阿火屋 屏山 比屋 并屋	城隍山在縣北一里鎮山 大巖山在安貞縣西三里	[邑城]없음	城隍祠在縣北一里		城隍山이 鎮山 比고에 古城北으로 - 리이며 城隍山이라 일컫는다.
	禮安縣	賈谷 善谷 宣城	城隍山在客館北鎮山	北山城石築周一千一百 四十九尺高四尺有軍倉	城隍祠在縣北山城內	宣仁廢縣在縣東九里本安德縣知道保部曲 高麗恭愍王陞爲縣改今名屬安東恭讓王時 來屬	郡名 - 宣城城隍山에 北山城과 城隍 祠가 위치.
龍宮縣	竺山 園山 龍州	竺山在客館北鎮山 龍飛山在縣南二里	龍飛山城石築周八百七 十一尺高七尺內有三泉有軍倉 [烽燧]龍飛山烽燧	城隍祠在縣東一里		郡名이 鎮山의 이름과 동일.	



표 3. 대구진관

鎮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大丘	大丘都護府	達勾火 達城	連龜山在府南三里鎮山諺傳建邑初作石龜藏于山脊南頭北尾以通地脉故謂之連龜公山或稱八公山在解顔縣北十七里新羅時稱父岳擬中岳爲中祀環而居者府及河陽新寧早溪仁同八莒等邑也	達城在府西四里石築周九百四十四尺高四尺內有三井二池有軍倉	城隍祠在府東	公山城在公山東距府三十里石築周一千五百六十尺高四尺內有泉二渠三成佛山古城在壽城縣西十里石築周三千五十一尺今廢	公山
	密陽都護府	推火密城密州歸化凝川密山	華嶽山或云屯德在府北九里鎮山推火山在府東五里白淵在穿火嶺下周百餘尺瀑布落石凹爲淵形如確臼故名世傳有龍深不可測天旱沉虎頭水噴湧卽雨	邑城石築周四千六百七十尺高九尺內有四井一池成化十五年築	城隍祠在推火山世傳府吏孫兢訓佐高麗太祖有功追贈三重大匡司徒封廣理君卽祠神也	推火山古城山頂有石城周二千三百六十尺內有二泉一池	推火山에 山城과 烽燧密陽의 古名이 推火密城
	淸道郡	道州鰲山伊山伊西大城馬岳	鰲山在郡南二里鎮山東有一谷名曰高沙洞天將風雨先期而鳴噴出雲氣雲入洞內則雨雲出洞外則風犬鳴則卽日有驗小鳴則二三日乃驗巨淵在郡東三十里有龍壇遇早則祈李木淵在雲門寺南俗傳有神物禱雨有驗烏惠山在郡東南三十一里	[邑城]없음	城隍祠在郡南二里	吹城在郡東七里東西皆石壁世傳高麗太祖東征至郡境有山賊叢聚據此城不服太祖問於奉聖寺僧寶壤壤曰犬之爲物司夜而不可晝守前而忘其後宜以晝擊其北太祖從之賊果敗烏惠山城石築周九千九百八十尺高七尺今廢中有三溪五池三泉	烏山 - 郡名이며 鎮山城隍祠와 方向과 거리가 같다
	慶山縣	押梁押督獐山章山玉山	馬巖山在縣南二十一里鎮山	[邑城]없음 [烽燧]城山烽燧在縣北八里	城隍祠在城山 [名宦]新羅金仁問武烈王時爲押督州摠管築獐山城以設險錄其功授食邑三百戶	古浦城在縣西九里石築周三千一百七十尺今廢金城在縣南七里石築周二千一百五十五尺今廢弓谷城在縣西六里周官六翼新羅時合三城爲押梁郡統合後改爲三城	郡名獐山. 城隍祠가 城山에 있다고 하였음. 城山은 金仁問이 축조한 獐山城일까?
	河陽縣	河州 花城	無落山在縣西十二里鎮山醮禮山在縣西二十里高麗太祖征甄萱于桐藪登此山祭天故名仍名焉	[邑城]없음	城隍祠在縣西三里		郡名花城
	仁同縣	斯同火 壽同 玉山	流嶽山在縣東十里鎮山玉山在縣東五十步天生城山在縣東八里四面石壁削立爲城如天作故名中有四池	[邑城]없음	城隍祠在縣北三里		城隍祠 거리 方向 일치하지 않음.
	玄風縣	推良火 玄驍 苞山 玄豐	琵琶山一名苞山在縣東十五里亦見星州密陽昌寧	西山城在縣西四里石築周一千八百二十三尺高六尺有軍倉	城隍祠在琵琶山俗傳靜聖大王之神凡水旱疾疫祈禱輒應故祭之者輻輳其紙布輸于活人署	苞山新羅時有觀機道成二僧同隱苞山相距十餘里	郡名 鎮山 동일. 城隍祠가 鎮山인 琵琶山에 위치.
	義興縣	龜山 龜城	龍頭山在縣東一里鎮山公山在早溪縣南四十二里城山在縣東二里	[邑城]없음	城隍祠在縣東五里	城山城土築周一千一百十尺今廢內有二渠公山城石築周三千七十五尺高十尺今半頽落內有二井三渠	郡名 龜城 城山 東二里 城隍祠 東五里
新增	新寧縣	史丁火 花山	花山在縣北三里鎮山公山在縣西十五里	[邑城]없음	城隍祠在縣西十里	古新寧在今治東二十五里	公山과 城隍祠 方向과 동일. 거리는 다름. 각각 十五里와 十里.
	靈山縣	西火 尙藥 鷺山 鷺城	靈鷺山在縣東北七里鎮山西域僧指空到此云山與天空靈鷺同其形故名法師池在縣南十八里天旱沈虎頭卽雨	[邑城]없음	城隍祠在靈鷺山 歧音江龍壇祀典稱伽倻津溟所春秋本邑致祭		郡名 鷺城 城隍祠 鎮山에 위치.
	昌寧縣	比自火 比斯伐 火王 下州 昌山 昌城 夏城 夏山	火王山在縣東四里鎮山	[邑城]없음	城隍祠在縣東一里	火王山古城石築周五千九百八十三尺今廢中有泉九池三	昌山 昌城 夏城 夏山은 山과 城이 동일시됨을 보여준다. 鎮山에 古城이 있고 城隍祠와 鎮山의 方向이 동일.



표 4. 상주진관

鎭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尙州	尙州牧	上州上洛沙梁伐沙伐商山 陀阿歸德軍	王山城內小山天峯山在州北七里鎭山屏風山在州東十里白華山在中牟縣西距州七十二里	邑城石築周一千五百四十九尺高九尺內有二十一井二池	城隍祠在天峯山	白華山有古石城周一千九百四尺內有一溪五泉今廢 沙伐國古城在屏風山下城傍有丘隆然世傳沙伐王陵	郡名상산 鎭山이 두 번째 기록됨. 鎭山에 城隍祠 위치.
	星州牧	本彼 星山 伽倻 新安 碧珍 廣平 岱州 京山 興安	印懸山在州北九里鎭山	邑城土築周四千五十二尺高十三尺羅閣五百五十二間內有七泉二池神增正德庚辰改築石城周四千五十二尺高九尺 城山烽燧在花園縣北	城隍祠在州城內	城山在花園縣北五里小山枕大江其上平廣伽倻山城石築周一萬五千九百三十五尺高五尺今半頽落內有六溪十泉夷險半之 禿用山城在州西三十三里石築周一萬三千六十四尺今半頽落內有溪三泉一 八莒山城在縣東距州七十八里石築周二千四百二十三尺今半頽落內有泉二池一	城隍祠가 州의 城內에 위치. 邑城은 土築이었다가 石築으로 改築 城山은 花園縣의 北쪽에 위치.
	善山都護府	一善嶋善善州和議	飛鳳山在府北十步鎭山金烏山高麗時稱南嵩山以配海州北嵩山在府南四十三里西開寧東仁同北府境高麗吉再居于此山下鯉埋淵在府東十二里即犬灘之下流東岸有奇岩岩下有龍穴天旱先燔柴於冷山之頂繼沉虎頭於此或祭龍以禱輒應	邑城土築高麗末知郡李得辰築之周二千七百四十尺內有九泉三池頽圯已久今只有南西二門	城隍祠在府西三里	金烏山城石築周七千六百四十四尺高七尺因壁爲城者居其半高峻奇險內有三池一溪祭星壇在府西五里竹杖寺側高麗時南極老人星現于此每歲春秋中氣日降香祀之至本朝廢其祭石壇至今存焉	鎭山과 城隍祠의  방향이 맞지 않음.
	金山郡	金陵	五波山在郡東一里鎭山 俗門山在郡北三十七里 高城山在郡南九里	俗門山城石築周二千四百五十尺高七尺內有二泉二池有軍倉 高城山烽燧	城隍祠在五波山		鎭山에 城隍祠 위치.
	開寧縣	青州甘文甘州	甘文山在縣北二里鎭山	[邑城]없음 甘文山烽燧	城隍祠在甘文山		鎭山名과 郡名 동일. 城隍祠 鎭山에 위치.
	知禮縣	知品川 龜城	龜山在縣南二里鎭山	[邑城]없음 龜山烽燧	城隍祠在龜山城內		鎭山名과 郡名 동일. 城隍祠 鎭山에 위치.
	高靈縣	大伽倻 高陽 靈川	耳山在縣西二里鎭山 美崇山在縣西二十里又見陝川郡	[邑城]없음 望山烽燧	城隍祠在縣西二里		城隍祠와 鎭山의 위치 거리 동일.
	聞慶縣	冠文 高思曷伊城 冠山 聞喜 冠縣	主屹山在縣北鎭山	[邑城]없음	主屹山祠祀典載小祀春秋降香祝以祭 城隍祠在縣北二里曠陽山祠梓木山祠獐山祠並今所在官春秋行祭 冠兮山祠附祭於主屹山		主屹山(鎭山)에 祭祀城隍祠主屹山方向. 曠陽山祠, 梓木山祠, 獐山祠하고 冠兮山祠는 主山에 붙여서 제사지냄.
	咸昌縣	古寧 咸寧 古冬攬 古陵	宰嶽山在縣西十三里鎭山	[邑城]없음 城山烽燧在縣南十里	城隍祠在縣西三里	南山古城在縣南十里石築周四千五百三十尺內有一井今廢	烽燧 縣의 남쪽 南山古城 鎭山과 城隍祠 방향 동일.



표 5. 진주진관

鎭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晉州	晉州牧	居列城居陀菁州康州 晉陽菁州晉山晉康 定海軍	飛鳳山在州北一里鎭山	轟石城在州南一里石築周四千 三百五十九尺高十五尺內有井 泉各三有軍倉	城隍祠在州南五里	松臺山城土築周四千七十三尺今頽圯城山 城其一在州東四十四里土築周二千八百十 四尺其一在州西四十八里石築周九百七十 七尺今皆頽圯	居列城 鎭山과 晉州 轟石城 南一里 城隍祠 南五里
	陝川郡	大良 江陽 陝州 大耶	北山在郡北一里鎭山蛇頭山在郡西五里一名松岳 美崇山在冶爐縣東又見高靈縣	[邑城]없음 美崇山烽燧	城隍祠在郡東八里 正見天王祠在海印寺中俗傳 大伽倻國王后正見死爲山神 美崇神祠在美崇山頂	美崇山城有古石築周一千六百四十 三尺內有一池六井葛帖城有古石築 周二千二百三十九尺高七尺	大良 大耶 邑城 없음. 北山鎭山城隍 祠郡의 東쪽.
	草溪郡	草八兮 八溪 清溪	清溪山在郡北一里鎭山彌陀山在郡南十六里亦見 宜寧縣	[邑城]없음 彌陀山烽燧	城隍祠在郡西七里		郡名清溪清溪山鎭山城隍祠와 鎭山의 방향이 다름(清溪山 위에 옛날에 쌓 은 고지가 있다).
	咸陽郡	速舍舍城天嶺許州 舍陽	白巖山在郡北五里鎭山八良峴在郡西三十里全羅道 雲峯縣界要害處也峴上有新羅時古壘	邑城古邑在郡東二里洪武庚申廢舍爲 倭寇所焚燧移治于文筆峯下築土爲城 周七百三十五尺羅閣二百四十三間門 有三東曰齊雲南曰望岳西曰清商沙斤 山城在郡東十七里沙斤驛北石築周二 千七百九十六尺高九尺內有三池庚申 歲監務張羣哲失其城守爲倭賊所屠廢 而不修成宗朝修築	聖母祠祠宇二一在智異 山天王峯上一在郡南嚴 川里高麗李承休帝王韻 記云太祖之母咸肅王后城隍 祠在郡東三里	古邑城在官邊里距今治四里	舍陽舍城古邑城의 위치? 八良縣에 新羅의 古壘
	昆陽郡	昆明 昆南 鐵城 昆山	銅谷山在郡北三里鎭山	邑城石築周三千七百六十五尺高二 尺內有三井三池	城隍祠在郡北五里		郡名鐵城 城隍祠와 鎭山의 方向  동일
	南海縣	轉也山 海陽 轉山 花田 輪山	望雲山在縣西二里鎭山	邑城石築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三 尺內有井一泉五四時不渴	城隍祠在縣北十九里	古縣山城在縣北十七里石築周一千七百四 十尺高十尺 官堂城在縣北十七里石築周 七百二十尺高九尺	轉也山 古縣山城과 城隍祠의 方向 동일. 거리 近접.
	居昌郡	居烈居陀娥林濟昌	乾興山在郡北八里鎭山 金貴山在郡東十五里	[邑城]없음	城隍祠在郡東四里	金貴山古城石築周一千五百八十七尺內有 二泉	金貴山古城과 城隍祠 方向  동일.  거 리 近접 .
	泗川縣	史勿 泗水 泗州 東城	豆音伐山在縣東六里鎭山 城隍山在縣南	邑城石築周五千十五尺高十五尺	城隍祠在山城內	城隍山城石築周一千九百四十一尺內有一 泉一池 通洋倉城在縣南十七里土築周三 千八十六尺即舊收稅之地	城隍山城內에 城隍祠 위치.
	三嘉縣	三支 三歧 歧山 麻杖 加 主火 嘉樹 嘉壽 鳳城	黃山在縣西四十七里 嶽堅山在縣東四十里 金城山在 三岐縣	[邑城]없음 金城山烽燧	城隍祠在縣北一里	古三歧縣距今治北四十七里有軍倉 嶽堅山 城石築周二千二百八尺	鎭山의 기록이 없음. 城隍祠의 위치 - 郡縣의 통폐합으로 위치가 현재 의 치소, 또는 鎭山의 方向과 다른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
	宜寧縣	獐舍 宜春 宜山	德山在縣北二里鎭山	[邑城]없음	城隍祠在縣西二里		宜寧宜山鎭山은 縣의 北쪽 城隍祠縣 의 西쪽.
	河東縣	韓多沙 河南 清河	陽慶山在縣北三里鎭山 金鰲山在縣南三里山之東南昆 陽郡界	邑城縣舊無城郭我世宗丁酉累石築于 陽慶山下周一千九百九尺高十三尺內有 五井一池	城隍祠在縣南三里		城隍祠는 金鰲山 아래 위치 鎭山이 시대에 따라 變한다?
	山陰縣	知品川 山陽	東山在縣東三里鎭山		城隍祠在縣西一里	古山城在縣南二里石築周一千三百四十六 尺今皆頽圯獨女城在縣西二十七里石築周 一千七百三十尺有溪泉今皆頽圯	
	安陰縣	利安 馬利 花林 感陰 南 內 餘善	城山在縣西三里鎭山 黃石山在縣西北十五里	黃石山城石築周二千九百二十四尺內 有一溪有軍倉	城隍祠在縣西二里		城山과 城隍祠 方向  동일.  거리  근 접.
	丹城縣	關支 關城 江城 珍城 龜 城 赤村 丹邑 丹溪	來山在縣北一里鎭山	東山城在縣北七里三面絕壁周二千七 百九十五尺東南百餘尺補築石城內有 一泉一池有軍倉	城隍祠在縣北五里		丹城 關城 江城 珍城 城隍祠는 縣의 北쪽 五里. 鎭山은 縣의 北쪽 一里.



표 6. 김해진관

鎭管	府·郡·縣名	郡名	山川	城郭	祠廟	古跡	備考
金海	金海都護府	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盆山在府北三里鎭山	邑城石築周四千六百八十三尺高十五尺內有泉二十八川一四時不渴	城隍祠在盆山	盆山城石築周一千五百六十尺今皆頽落內有二井冬夏不渴 漕轉城在府東十八里石築周二百六十五尺	金海고명 盆城 盆山에 古城 그리고 城隍祠 盆山에 위치.
	昌原都護府	屈白 義安 義昌 檜山 骨浦 合浦 會原 還珠	檐山在府北一里鎭山西連靑龍山簾山在府東二十五里	邑城石築周四千九百二十尺內有一井一池 [烽燧]城隍山烽燧在府西十五里	城隍祠在府北檢山	簾山古城在府東二十三里石築周八千三百二十尺內有小渠八大井一	鎭山 檐山과 검산은 동일 명칭인 가능성이 높음.
	咸安郡	阿尸良 阿羅伽倻 咸州 金羅 沙羅	餘航山在郡西南十五里鎭山道場淵源出餘航山東至郡南十里停溜爲淵深不可測每當歲旱沉虎頭有應又合巴山西出小川流過郡東爲大川防禦山一名確山在郡西三十里晉州班城縣界	邑城石築周五千一百六十尺高十三尺	城隍祠在郡北五里	防禦山城石築周九百二十三尺內有一井今廢	鎭山과 城隍祠의 方向이 다름.
	巨濟縣	裝郡 歧城	鷄龍山在縣南五里鎭山加羅山在縣南三十里有牧場望對馬島最近	邑城石築周三千三十八尺高十三尺內有三泉二池 鷄龍山烽燧 加羅山烽燧	城隍祠在城南一里	古縣城在縣西十七里石築周二千五百一十一尺六寸高九尺屯德歧城內縣西三十七里石築周一千二尺高九尺內有一池世傳本朝初高麗宗姓來配之處	鎭山과 城隍祠의 方向 동일. 거리 근접
	固城縣	古白 固州 鐵城	無量山在縣西十里鎭山 彌勒山在縣南六十七里 南山在縣南二里有古城基 城山在縣北二十四里有古城基址 龍水巖在縣北二十里有泉其深無底天旱禱雨有應	邑城石築周三千五百二十四尺高十五尺內有四井一池	城隍祠在縣西二里新增土人常以五月一日至五日相聚分兩隊載祠神像豎綠旗遍歷村閭人爭以酒饌祭之儼人畢會百戲具陳		鎭山과 城隍祠의 方向 동일. 龍水巖 鐵城
	漆原縣	漆吐 漆隄 龜城 武陵	靑龍山在縣東七里鎭山武陵山在縣北十里城山在縣北五里清涼山在龜山縣東二里古龜山縣鎭山	邑城石築周一千五百九十五尺高十一尺	城隍祠在縣東一里	山城在縣北四里石築周一千三百四十二尺今皆頽圯	龜城 武陵(武陵山) 城隍祠와 鎭山 方向 동일. 山城-성산
	鎭海縣	八鎭 牛山	鷲山在縣北五里鎭山牛山在縣西五里	邑城石築周四百四十六尺高九尺	城隍祠在縣南五里	富山鄉在縣西三里	鎭山과 城隍祠의 方向이 맞지 않음. 牛山과 富山鄉의 方向 동일?
	熊川縣	熊只 熊口 熊神 屏山 熊山	熊山在縣北五里鎭山屏山在縣北一里北連熊山	邑城石築周三千五百四十四尺高十五尺內有二井 城山烽燧	城隍祠在縣北一里熊山神堂在山頂土人每四月十月迎神下山必陳鐘鼓雜戲遠近爭來祭之	高山城石築周四千一百七十一尺	熊山 郡名 鎭山과 城隍祠와 方向 거리 동일.



우선 경상도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행정구역은 경주진관, 안동진관, 대구진관, 상주진관, 진주진관, 김해진관 등 모두 6개의 진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주진관에는 경주부와 울산, 양산, 영천, 홍해 4개 군, 동래, 청하, 연일, 장기, 기장, 언양 6개 현 등 모두 11개 군현, 안동진관에는 안동대도호부, 영해, 청송 등 2개 도호부, 예천, 영천, 풍기 등 3개 군, 의성, 영덕, 봉화, 진보, 군위, 비안, 예안, 용궁 등 8개 현 등 모두 14개 군현, 대구진관에는 대구, 밀양 등 2개 도호부, 청도군, 경산, 하양, 인동, 현풍, 의흥, 신녕, 영산, 창녕 등 8개 현 등 모두 11개 군현, 상주진관에는 상주, 성주 등 2개 목, 선산도호부, 금산군, 개녕, 지례, 고령, 문경, 함창 등 5개 현 등 모두 9개 군현, 진주진관에는 진주목, 합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등 5개 군, 남해, 사천,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등 8개 현 등 모두 14개 군현, 김해진관에는 김해, 창원 등 2개 도호부, 함안군, 거제, 고성, 칠원, 진해, 웅천 등 5개 현 등 모두 8개 군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앞서 지적한 제사가 이루어졌던 산이나 숲(林), 나무(樹), 내(川) 또는 城이 군현명에 포함된 예를 살펴보면 경주진관에는 경주(월성), 울산(학성, 화성), 홍해(미질부성, 오산), 동래(장산, 거칠산, 래산), 청하(덕성), 연일(오천), 장기(봉산), 기장(차성), 언양(현산) 등 9/11개 군현(82%), 안동진관에는 안동(화산), 예천(청하), 영천(귀성), 영덕(야성), 봉화(봉성), 진보(보성), 비안(병산), 예안(매곡, 선성), 용궁(축산, 원산) 등 9/14개 군현(62%), 대구진관에는 대구(달성), 밀양(밀성, 밀산), 청도(오산, 이산, 대성, 마약), 경산(장산, 옥산), 하양(화성), 인동(옥산), 현풍(포산), 의흥(귀산, 귀성), 신녕(화산), 영산(취산, 취성), 창녕(창성, 하성, 하산) 등 11/11개 군현(100%), 상주진관에는 상주(상산), 성주(성산, 경산), 지례(지품천, 귀성), 고령(영천), 문경(관산, 고사같이성, 관현) 등 5/9개 군현(56%), 진주진관에는 진주(거열성, 진산), 초계군(팔계, 청계), 함양(함성, 천령), 곤양(철성, 곤산), 남해(전야산), 거창(아림), 사천(사수, 동성), 삼가(기산, 가수, 봉성), 의령(의산), 하동(청하), 안음(화림), 단성(궐성, 강성, 진성, 귀성, 단계) 등 12/14개 군현(86%), 김해진관에는 김해(분성), 거제(기성), 고성(철성), 칠원(귀성), 진해(우산), 웅천(웅산, 병산) 등 6/9개 군현(67%) 등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67개 군현 가운데 52개 군현(78%)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군현명에 산이나 성의 이름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들이 같은 대상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지방의 세력집단들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군현명으로 정착되고 자신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바로 자신들의 출자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현명에는 산과 성이 같이

취급되고 있는 예가 많은데 고대에는 산성이 치소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주민들의 생활이 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신들을 그 산성이나 산에 속한 사람들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군현명이나 진산의 명칭이 동일한 예는 아마도 이러한 전통이 깊이 남아 있는 결과로 보이는데 언양(현산, 고현산), 용궁(축산), 청도(오산), 신녕(화산), 영산(취산), 창녕(화왕산), 개녕(감문), 초계(청계), 김해(분산), 웅천(웅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사를 지낸 제장이 후대에 진산으로 남아 있고 또 대도제의 제장이 큰 나무가 서 있는 갈림길에서 여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구하거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황당과 유사한 성격의 제사로 보는 견해가 용인된다면 진산과 성황당의 관계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성황당이 있는 성황산이 고을의 진산인 경우와 성황당의 위치가 진산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sup>63)</sup>

경주진관의 경주와 청하, 장기, 언양의 경우는 고읍성 내에 성황당이 위치하고 있거나 거리만 다를 뿐 같은 방향이며 양산의 진산 이름은 아예 성황산이다. 그리고 흥해군의 이칭은 미질부성인데 미질부성은 고적조에 남미질부성과 북미질부성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흥해의 고대명칭은 미질부가 된다. 또한 안동진관의 안동에는 진산의 기록이 없으나 산천조에 맨 먼저 기록된 청량산에 산성이 축조되어 있고 예천에는 진산 덕봉산에 산성(흑웅산성)과 성황당이 위치하며, 영

63) 『승람』이 편찬될 당시에 태종 이래의 읍성 축조 방침에 따라 전국에 읍성이 축조되었으나 아직 읍성이 축조되지 않은 군현이 적지 않으나 성황사가 빠진 군현은 단 하나도 없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진산이 각 군현의 산천향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승람』이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은 반드시 일관된 기준이 있었겠지만 각 군현에서 편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규칙대로 통일성 있게 기록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현의 읍성의 축조 상황을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주진관 - 10/11(영천), 안동진관 - 7/14(청송, 풍기, 의성, 봉화, 진보, 군위, 비안), 대구진관 - 3/11(청도, 경산, 하양, 인동, 의흥, 신녕, 영산, 창녕), 상주진관 - 4/9(개녕, 지례, 고령, 문경, 함창), 진주진관 - 6/14(합천, 초계, 거창, 삼가, 의령, 산음), 김해진관 -(8/8)로 나타나고 전체 67개 군현 가운데 38개 군현에 읍성이 축조되어 약 57%의 축조율을 보이고 있다.(괄호 안은 읍성이 축조되지 않은 군현명을 나타냄) 그나마 안동진관의 읍성 가운데 4개 읍성(예천, 영천, 예안, 용궁)은 전 시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대구진관 역시 읍성으로 새로 축조된 것은 밀양 밖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가 경상도 관내만 10개 군현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읍성 축조율은 42%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낮고 경주진관(91%)이나 김해진관(100%)의 경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안에 위치한 군현과 내륙에 위치한 군현의 읍성 축조 상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선시대 초기 읍성을 축조할 당시의 목적이 남쪽의 연안을 따라 왜구를 방비할 목적으로 읍성이 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덕의 진산과 상황사는 방향과 거리가 일치한다. 비안과 예안의 진산도 성황산이며 성황사도 위치하는데 예안의 진산에는 복산성이 축조되어 있다.

대구진관의 대구의 군명은 달성이라고도 하는데 달성은 읍성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밀양의 고명은 추화인데 추화산에는 산성과 성황당이 위치하고 있다. 청도 역시 고명은 오산인데 진산의 이름도 오산이며 성황사는 오산에 위치한다. 그리고 경산의 고명은 장산인데 성황사는 성산에 있다고 하였으며 장산에는 김인문이 무열왕 당시에 압독주 총관으로 있으면서 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현풍의 진산은 비슬산으로 보이는데 성황사는 비슬산에 있다. 신녕과 화산, 창녕의 다른 이름은 각각 화산, 취산, 화왕인데 모두 진산의 이름이며 영산과 창녕은 성황사가 진산에 있다고 하였다.

상주진관의 상주는 산천조에 진산이 먼저 기록되지 않고 성내에 있는 왕산을 먼저 열거한 다음 천봉산을 진산으로 기록하였는데 성황사는 진산에 있다. 성주에는 성황사가 성내에 위치하며 금산에 성황사는 진산에 위치한다. 개녕과 지례는 각각 감문과 귀성이라고 하는데 진산의 이름과 동일하며 성황사도 진산에 위치한다. 그리고 문경의 진산인 주흘산은 조선시대에는 소사에 올라 있으며 성황사도 진산에 있다.

한편 진주진관의 남해는 전야산이라고도 하는데 고현산성은 전야산에 축조된 것이며<sup>64)</sup> 성황사와 방향과 거리가 거의 일치한다. 사천은 사수 또는 사물이라고 하는데 현의 남쪽 성황산에 성황사가 위치하며 정상에는 석성이 위치한다. 김해진관의 김해는 고명이 분산인데 진산의 이름도 동일하며 정상에는 성이 축조되어 있고 성황사도 분산에 위치한다. 창원의 진산은 첨산이라고 하였는데 성황사는 같은 방향의 검산이라고 하였는데 같은 산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제와 고성, 칠원은 진산과 성황사의 방향이 동일하며 웅천의 고명은 웅산인데 진산도 같은 이름이고 성황사도 진산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진산의 이름과 군현의 이름이 같거나 진산에 성이 축조되고 있는 예가 적지 않고 성황당 역시 진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 진산에 위치하거나 진산과 방향이 같고 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성황당이 진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성황이란 원래 국가나 고을을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한 방어시설에 대한 명칭으로 성과 그 둘레에 파놓은 참호에 대한 명칭이었다. 고대에는 여기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성황사를 건립하고 성황신을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64) 정의도·안성현, 2005, 『남해 대국산성 - 남문지 및 연지』 학술조사연구총서 제34집, 남해군·경남문화재단연구원.

성황이라는 말이 처음 보이는 것은 후삼국 무렵이다. 즉 궁예가 904년 국호를 마진이라 하고 여러 관부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장선부가 있었고 그 관장 사항이 바로 성황에 대한 수리였던 것이다.<sup>657</sup> 이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황의 본래 뜻은 방어시설에 대한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황의 기록이 『高麗史』에 보이는 것은 고려사 성종 11년에 사수현으로 귀양 간 안중 육의 유언에 현의 성황당 남쪽에 묻어 달라는 기사이다.<sup>667</sup> 사수현은 조선시대에 사천현이 되는데 성황산은 현의 남쪽에 있고 성황사는 산성 내에 있다고 하였다.<sup>667</sup> 이와 같은 기사를 두고 보면 성황당이 사수현에 있었던 것은 성종 11년 이전이 되어 성황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라나 고을에 대한 방어신으로서 성황신앙은 고려 문종 9년 북쪽 변경 지역인 선덕진에 새로운 성을 수축하고 여기에 성황신사를 설치하여 춘추로 제사하였다는 기록과<sup>668</sup>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후 사람을 보내어 제성의 성황묘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는<sup>669</sup>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수호의 목적에서의 성황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충청도 온양에서도 몽고병을 격퇴하고 난 후 성황신의 음조 덕택이라 하여 그 군의 성황신에게 신호를 더해 주기도하였고<sup>701</sup> 공민왕은 홍건적을 물리치고 난 후 제도 제군의 성황신에게 제사하였다<sup>71</sup>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勝覽』을 살펴보면 김인훈이 양산의 성황신이 되고 손공훈이 밀양의 성황신이, 신승겸이 곡성현의 성황신이, 김홍술이 의성의 성황신이 되고 있다.<sup>721</sup> 이것은 성황사에 배향된 인물들이 모두 그 지역의 토성이며 후삼국 통일

657 『三國史記』 卷第50 列傳 第10 弓裔, “...天祐元年甲子 立國號爲摩震 年號爲武泰 始置廣評省 備員 匡治奈(今侍中) 徐事(今侍郎) 外書(今員外郎) 又置兵部 大龍部(謂倉部) 壽春部(今禮部) 奉賓部(今禮賓省) 義刑臺(今刑部) 納貨府(今大府寺) 調位府(今三司) 內奉省(今都省) 禁書省(今秘書省) 南廂壇(今將作監) 水壇(今水部) 元鳳省(今翰林院) 飛龍省(今天僕寺 [天 恐作太]) 物藏省(今少府監) 又置史臺(掌習諸語) 植貨府(掌栽植菓樹) 障繕府(掌修理城隍) 珠淘省(掌造物成器) 又設正匡-元輔-大相-元尹-佐尹-正朝-甫尹-軍尹-中尹等品職...”

667 『高麗史』 卷90 列傳 3 宗室 太祖, “郁工文辭 又精於地理 嘗密遺顯宗金一囊曰 我死以金贈術師 令葬我縣城隍堂南鑿龍洞 必伏埋 成宗 十五年 郁卒于貶所 顯宗如其言將葬 請伏埋 術師曰 何大忙乎 明年二月 顯宗還京 及即位 追尊孝穆大王 廟號安宗。”

66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泗川縣, “山川 城隍山在縣南 城隍祠在山城內 城隍山城石築周一千九百四十一尺內有一泉一池。”

668 『高麗史』 卷63 志 17 禮 雜祀 “文宗九年三月壬申 宣德鎮新城 置城隍神祠 賜號崇春 春秋致祭。”

669 『高麗史』 卷98 列傳 11 金富軾, “辛酉富軾備軍儀 入景昌門坐觀風殿西 序受五軍兵馬將佐賀 使人祠詣城隍神廟 撫慰城中使按堵。”

701 『高麗史』 卷23 高宗 23年 9月 丁巳, “蒙兵圍溫水郡 郡吏玄呂等 開門出戰大敗之 斬首二級 中矢石死者二百餘人 所獲兵仗甚多 王 以其郡城隍神有密祐之功 加封神號 以呂爲郡戶長。”

71 『高麗史』 卷63 志 17 禮 5 雜祀, “恭愍王 九年三月甲午 祭諸道州郡城隍於諸神廟以謝戰捷。”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들의 사후에 그 후손들이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하여 성황당을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순창에서는 고을 출신으로 설공검을 성황신으로 추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sup>72)</sup> 지역의 토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고을을 수호하는 성황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sup>74)</sup> 이처럼 고려시대의 성황사는 지역의 수호에 그 목적을 크게 두면서 때로 기우의 목적으로도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 수호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산과 자연히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기우제를 지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진산이 제사의 장소가 되거나 고대로부터 지역집단의 출자가 되는 근간이라면 진산이 위치하는 방향은 어떠할까? 진산의 방향을 각 진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주진관 동/서/남/북-2/4/1/4, 안동진관 동/서/남/북-0/1/2/7(4개 군현 진산기록 없음), 대구진관 동/서/남/북-3/1/3/3(1개현 진산기록 없음), 상주진관 동/서/남/북-1/2/1/5, 진주진관 동/서/남/북-2/3/0/9, 김해진관 동/서/남/북-1/1/2/4로 전체적으로는 동/서/남/북-9/12/9/32이다. 그러므로 67개 군현 가운데 진산이 기록되지 않은 5개현(안동, 영해, 풍기, 의성, 현풍)을 제외하고 62개 군현의 진산은 32개 군현이 진산이 북쪽에 위치하여 52%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쪽에 진산이 많이 위치한 안동진관과 진주진관은 각각 북쪽에 위치한 소백산맥과 지리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성황사가 지역을 수호하는 성황신을 모신 사당이라면 당연히 지역을 방호하는 주된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산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성황당이 위치하는 방향은 경주진관 동/서/남/북-4/1/3/3, 안동진관 4/4/0/6, 대구진관 동/서/남/북-5/2/1/3, 상주진관 동/서/남/북-1/3/1/4, 진주진관 3/4/3/4, 김해진관 1/1/2/4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동/서/남/북-18/15/10/24로 동쪽과 북쪽에 전체 성황당의 63% 정도가 분포한다. 이것은 진산이 동쪽과 북쪽에 위치하는 비율 66%와 거의 근접하여 진산과 성황당과의 관련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勝覽』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국가에서 지내는 사전에 올라있는 산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산천에 대한 제사

72) 『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 양산, 의성, 밀양, 전라도 곡성, 순천 조 참조

73) 김갑동, 1998, 「고려시대 순창의 성황신앙과 그 의미」, 『성황당과 성황제』 순창 성황대신사적기 연구 한국 종교민속학 총서1, 한국종교사연구회편, 민속원, 81~120쪽.

74) 김철웅, 앞의 책, 제2장 고려시대의 잡사 4. 고려의 성황제.

를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75)</sup>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제사는 대사, 중사, 소사, 기고제, 주현제, 속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종 제사의 사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천신에 대한 제사는 「祀」, 지신에 대한 제사는 「祭」, 인귀에 대한 제사는 「亨」이라고 하며 문선왕에 대해서는 따로 「釋尊」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sup>76)</sup> 산천에 대한 제사는 소사로 경성과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풍해, 영길, 평안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77)</sup>

이와 같이 산천에 대한 제사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초 한양에 신도를 건설하기 전에 산천봉작을 하면서 명산대천으로 경내에 있는 것은 상시로 제사하는 법전에 실렸으니 이는 신령의 도움을 빌고 신령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sup>78)</sup> 또한 산천의 제사는 이미 민간에서 각처의 성황과 산신을 태왕·태후·태자·태손·비 등으로 호칭하여 음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재상이 명산에 제사를 지낸다고 비판하고 있을 만큼 산천신에 대한 숭배사상은 민간에 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sup>79)</sup> 『승람』에 여러 가지 민간신앙을 기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결국 조선시대 대부분의 산천제는 기우제로 변화하게 된다.<sup>80)</sup>

75)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각종 기우제와 산천제사 기록을 참조할 것, 그리고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에는 吏曹에서 나라 안의 이름난 산과 큰 강, 성황당, 바다섬의 귀신들에게 爵位를 封하자고 청하고, 『太宗實錄』에는 禮曹에서 산천에 지내는 제사절차에 관련하여 『唐書』 禮樂志 와 『文獻通考』에 실린 송나라 제도에 보이는 제사규정을 들어 나라 안에 있는 이름난 산들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제사하자는 의견도 남아 있다. 그리고 延安府 南池에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이어서 白岳·木兪·漢江의 신에 제사 지냈다는 기사와 禮曹에서 山川諸神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남아 있다.

76) 『국조오례의』의 제사는 주제자의 신분으로 대별하면 국제·주현제·가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국왕을 주제자로 하는 제사)에는 다시 대·중·소의 정제와 기고제, 그리고 왕실의 속제가 있다. 『국제오례의』 길례의 내용은 주로 국제에 관한 제도적 규정 및 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이 밖에 주현제, 가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국가사건의 내용은 비단 국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수령이 주관하는 주현제와 대부·사서인이 행하는 가제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김해영, 2003, 『조선 초기 제사전례 연구』, 조선시대사연구총서 13, 집문당).

77) 경성: 목덕산 경가: 오관산, 감악산, 양진 충청: 계룡산, 죽령산, 양진명소 경상: 울불산, 주홀산 강원: 치악산, 의관령, 덕진명소 풍해: 우이산, 장산곶, 아사진, 송곶 영길: 영흥성황, 함흥성황, 비류수 평안: 청천강, 구진, 익수(김해영, 앞의 책, 117쪽, 표 II-1 약해진·산천의 소재지 및 판사).

78) 『太祖實錄』 권6 太祖 3년 12월 무진.

79) 『太祖實錄』 권15 太祖 7년 12월 무오;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 2월 정사.

80) 『成宗實錄』 권40 成宗 5년 3월 신묘; 韓亨周, 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 一潮閣, 191~198쪽.

『勝覽』에 의하면 경주부 안강현 온지연에는 용당이 있는데 가뭄에 기우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울산군의 입암연에는 용이 있어 가뭄에 기우하면 응함이 있다고 하였다. 양산군에도 옥지연에서 황용이 나타났는데 가뭄에 기우한다고 하여 비를 부르는 용이 연지나 강에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연일현의 진산 운제산 정상에는 대왕암이 있는데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가뭄에 비를 빌면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sup>81)</sup>

그리고 영해도호부 용두산 정상에 한 갈대가 있어 하늘에 닿았는데 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맑았는데 간사한 사람이 비치면 변하여 진흙 빛이 되었다고 하였다. 봉화현 태백산 아래에는 용연이 있는데 가뭄되면 비를 빈다고 하였고 군위현에는 기우단이 기우봉의 정상에 있다. 밀양도호부의 구연은 천화령 아래 있는데 용이 있으며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뭄에 범의 머리를 집어넣으면 물이 뿜어 나와 곧 비가 된다고 하였는데 용이 사는 연못에 비를 빈다는 기사는 청도의 거연과 이목연에도 있고 선산도호부와 함안군에도 있다.<sup>82)</sup> 그리고 청도에는 하양에는 醮禮山이 있는데 고려 태조가 동수에서 견훤을 치고 이 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sup>83)</sup>

이와 같은 산천제가 결국 기우제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연구과제가 남

81) 그렇다고 모든 하천에 용이 있어 비를 내리는 것을 주재한다고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용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82) 견탄의 하류에 이매연이 있는데 동쪽 기슭에 기이한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용의 굴이 있어 날이 가물 때 우산 낭산 꼭대기에서 불을 피우고 하늘에 제사한 뒤 이어 범의 머리를 여기에 잠그고 혹은 용에게 빌면서 제사를 지내면 곧 감응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함안군의 도장연은 군의 남쪽 10리에 있는데 날씨가 가물 때 범의 머리를 담그면 영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기우제는 김의숙의 연구에 의하면 용소투석형(상극형 또는 대항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며(김의숙, 1993,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민속제의의 형성 이론-』, 집문당, 240~285쪽), 최종성에 의하면 잠룡기우(위협)에 분류되는 것이다(최종성, 2002, 『조선조 무속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142~276쪽).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용이 사는 못에 범의 머리를 던지면 정말 비가 온다고 믿었던 것 같다. 창녕 화왕산 정상에는 『승람』에도 九泉三池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3지는 창녕 조씨의 특성설화와 관련하여 용이 살고 있다고 믿어 지금도 창녕 조씨 가문에서는 ‘용지’라고 부른다. 3지 가운데 발골조사원 제2 연지의 조선시대층에서 호랑이 두개골이 출토되어 용이 살고 있다고 믿는 못에 호랑이의 머리를 던지면서 기우제를 지냈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정의도, 2006, 『창녕 화왕산성 연지연구』, 『한국성곽학보』 제9집, 한국성곽학회, 151~174쪽).

83) 초례는 도교의 의식으로 수서에 따르면 밤중에 별 아래에서 술이나 마른 고기 등의 공물을 차려 놓고 천황, 태일, 오성, 열수에게 제사 드리고 상장의 법과 같이 써서 아뢰는 것을 초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성수에 대한 제사와 산천 등의 여러 제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성수, 천지, 산천에 대한 신앙이 포함된 복합신앙으로 볼 수 있다(김철용, 앞의 책, 66~83쪽).

아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왕권이 강화되어 지방의 세력들이 중앙 정부의 통제 밖에서 산천제를 직접 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지방민을 결속하기 위한 제의로 기우제나 성황제를 산천에서 지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산천은 주요한 제사의 대상이었다.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국의 영고는 선달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고 고구려는 하늘과 사직 및 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하며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고 이름하여 동맹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의 풍습에는 산천을 중히 여기며 산천에는 각기 부락의 경계가 있고 서로 간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한에는 모든 국읍에 제사를 주재하는 천군이 있었다고 하여<sup>84)</sup> 우리나라에 하늘과 산천을 중시하는 전통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산천제는 산악 그 자체에 대한 제사이기 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로 믿고 있던 산신에 대한 제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석탈해가 돌아가자 未召 䟽井白 속에 수장하고 동악에 안치하여 모신 동악대왕이나<sup>85)</sup> 선도산 신모나 그 기사에서 보이는 오악신군이나 가끔 현신하여 왕을 모셨다는 오악·삼신의 신들이 제사를 올리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三國史記』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산천제를 지냈던 산이나 천은 국경의 개념이나 지역 방호의 근거지, 한 집단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는데 이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서 ‘鎭山’이라는 개념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산은

84)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夫餘國,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 是時擿刑獄 解囚徒...”, 高句麗 “...好祀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濊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界 不得妄相干涉...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祀虎以爲神...”, 韓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 群聚歌舞 舞輒數十人相踴蹋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85) 『三國遺事』卷第1 王曆 第1, “第四脫解尼叱今...丁巳立 理二十三年 王崩水葬 未召䟽井白中 塿骨安東岳 今東岳大王...”

고려시대에 들어서 시작된 성황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진산과 거리와 방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사에서 보다시피 지역의 토성들은 자기 조상을 고을을 수호하는 성황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아 결국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예를 든 이성산성, 설성산성, 설봉산성, 공산성, 부소산성, 계족산성, 마노산성, 화왕산성, 성산산성에서는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구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부여 논치유적은 지금까지 산에서 발견된 제사유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형태로 산천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될 만한 유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산성이 축조된 산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을의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황사와도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산성은 대부분 고적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굴된 진산에 축조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에서 확인되는 제사유적은 산천제 또는 사성문제, 압구제, 벽기제 등의 제사가 행하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 읍성이 평지에 축조되기 전까지 청야입보 정책의 근간은 치소 또는 농성장이 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임을 생각한다면 적을 물리쳐 주기를 기원하는 산천제 역시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도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산성에서 이와 관련된 제사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백제를 병합하면서 당 고종의 소에 의하여 신라 문무왕과 백제의 부여웅 사이에 회맹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는 熊津城이며 會盟 가운데 壇을 만들고 백마를 잡아 맹세하며 천신과 산천의 영에게 제사를 지낸 후 삼혈하였다는 것은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제사의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sup>867</sup>

이와 같이 산천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산성에서 확인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발굴조사 과정이나 그 결과를 고찰하면서 제사로 인한 현상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진산에 축조된 성이나 삼국시대에 초축된 성곽은 전반적인 조사가 당시의 성곽의 축조 배경이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up>867</sup> 『三國遺事』 卷一 紀異二 太宗春秋公, “...新羅別記云 文虎王即位五年乙丑秋八月庚子 王親統大兵 幸熊津城 會假王扶餘隆作壇 刑白馬而盟 先祀天神及山川之靈 然後歃血爲文而盟曰...”

그러나 산성에서 제사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한편 타당하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확인된 제사유적을 제사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집수정에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한 어떤 목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발견되는 각각의 제물들이 어떤 상징성으로 집수정 내부나 산성 내의 특정한 지역에 투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창녕 화왕산 집수지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어 제사를 지냈으며 용왕에 대한 헌물로서 말을 상징하는 재갈과 호등을 투기하고 가위, 칼, 다연, 철복 등을 투기하였을 것이다. 재갈과 칼은 광양의 마노산성에서도 집수정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이 출토된 동기는 창녕의 화왕산성 집수정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87)</sup>

물론 모든 통일신라시대까지 축조된 산성 내에 위치한 모든 집수정이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산천신이 집수정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숭배와 제사의 대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고 성황신도 국가와 고을을 방호하기 위하여 파 놓은 황에 호국신이 있다고 하여 성황신에게 제사지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안압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고<sup>88)</sup> 동궁을 짓고 임해전에서 잔치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으나 월지악전이나 용왕전 등의 관서가 동궁에 속해 있고<sup>89)</sup> 제사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월지에 용왕이나 산천신이 주재한다고 믿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sup>90)</sup>

87) 창녕 화왕산성과 광양 마노산성의 공통점은 통일신라시대의 치소였다는 것이다. 화왕산은 창녕의 진산으로 경덕왕 때 창녕은 화왕군이었고 광양은 본래 백제의 마로현이었으며 마노관명기와의 출토되기도 하였다. 또한 집수정에서는 말을 상징하는 철제 재갈과 대도가 동일하게 출토되었다. 『승람』에 조선시대 광양의 진산은 마노산이 아니라 백계산인데 군명에는 마노, 회양이라고 하였다. 아직 지리지 전체 기록을 다 살펴서 대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진산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예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

88) 『三國史記』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4년(674) 2월, 문무왕 19년(679) 8월, 신라본기 제8 효소왕 6년(697) 9월조 참조.

89) 『三國史記』 卷第39 雜志 第8 職官 中 “東宮官 東宮衙 景德王十一年 置上大舍一人 次大舍一人 …月池典…月池巖典大舍二人 水主一人 龍王典大舍二人史二人。”

90) 안압지는 동궁에 속한 원지였지만 안압지 내부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어 제사를 지냈던 기관이 용궁전이었으며 제사를 지낸 다음 제물로 투기된 것이 『辛審龍王』이나 『龍王辛審』銘접시와 대접, 그리고 납제 가위나 원반이었던 것이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본문편·도판편; 정의도, 2007, 『고려시대 철제가위 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273~328쪽).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체성부도 물론이지만 문지나 집수정, 산성 내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혈유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구가 발견된다면 위치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史書 및 地理志

『禮記』  
『後漢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事典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9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日本史大事典』 6, 1994, 平凡社

### 單行本

沈奉謹, 2005, 『韓國文物의 考古學的 理解』, 東亞大學校 出版部.  
李基白, 1974, 『新羅社會政治史研究』, 一潮閣.  
崔光植, 1994, 『古代韓國의 國家와 祭祀』, 한길사.  
金杜珍, 1999,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 羅喜羅, 2003, 『新羅의 國家祭祀』 솔벗 한국학총서 1, 知識産業社.
-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 황경숙, 2000,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 辛仙姬, 2006, 『韓國古代劇場의 歷史 -우리 옛 극장의 기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서』, 열화당.
- 金澈雄, 2007, 『韓國中世의 吉禮와 祭祀』 高麗史學研究叢書 17, 景仁文化社.
- 金承璨, 1980, 『民俗學散稿』, 第一文化社.
- 徐仁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中心으로-』, 母岳實學會叢書 第15輯, 혜안.
- 金海榮, 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研究』 朝鮮時代史 研究叢書13, 集文堂.
- 金義淑, 1993,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民俗祭儀의 形成理論-』, 집문당.
- 최종성, 2002, 『조선조 무속국행의례연구』, 일지사.
- 이종철·박호원, 1994, 『서낭당』, 대원사.
- 韓國宗敎史研究會, 1998, 『城隍堂과 城隍祭』 淳昌 城隍大神事跡記 研究, 韓國宗敎民俗學叢書 1, 民俗苑.
- 李道學 외, 2006, 『扶蘇山城을 다시 본다』 부여군 백제신서 01, 주류성출판사.
- 和田萃, 1995, 『日本古代의 儀禮と祭祀·信仰』, 塙書房刊.
- 濱田耕策, 2002, 『新羅國史의 研究 -東アジア史의 視點から-』, 吉川弘文館.

## 論文

- 金虎俊, 2002, 『雪城山城 發掘調査 概要』, 『韓國城郭研究叢書』 1, 韓國城郭研究會.
- 鄭義道, 2006, 『昌寧 火王山城 蓮池研究』, 『韓國城郭學報』 제9집.
- 2007, 『고려시대 철제가위 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 洪淳昶, 1985, 『新羅의 三山五嶽と新羅人의 山嶽崇拜』,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歷史編, 平凡社.
- 文暻鉉, 1991, 『新羅人의 山嶽崇拜와 山神』, 『新羅思想의 再照明』(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 김갑동, 1998, 『고려시대 순창의 성황신앙과 그 의미』, 『성황당과 성황제』 순창 성황대신사적기 연구 한국종교민속학 총서 1 한국종교사연구회편, 민속원.

## 報告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本文編·圖版編.

-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6, 『二聖山城』 이성산성 발굴20주년 기념특별전.
- 河南省·漢陽大學校 文化財研究所, 『二聖山城綜合整備基本計劃 學術研究 報告書』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2,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4, 『이천 설봉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4, 『이천 설봉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6, 『이천 설봉산성 4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6, 『이천 설봉산성 4·5·6차 발굴조사 보고서』
- 박경식 외, 2004,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Ⅰ)(Ⅱ)-』, 포천시·단국대학교 매  
 장문화재연구소.
- 李南奭·李勳, 1999, 『公山城池塘』, 公州大學校 博物館·忠清南道.  
 扶餘文化財研究所, 1995, 『扶蘇山城 中間發掘 보고』.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發掘調查報告書』.  
 \_\_\_\_\_, 1997,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 Ⅱ』.  
 \_\_\_\_\_, 1999,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 Ⅲ』.  
 \_\_\_\_\_, 1999, 『扶蘇山城 -整備에 따른 緊急發掘調查-』.  
 \_\_\_\_\_, 2000,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 Ⅳ』.  
 \_\_\_\_\_, 2003, 『扶蘇山城 發掘調查報告書』.
- 朴淳發·李晟準·土田純子·李畎燮, 2005, 『大田 鷄足山城』 忠南大學校 百濟研  
 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大田廣域市.
- 車勇杰·趙順欽, 2005, 『忠州山城 -東門 南側 貯水池 試·發掘調查 報告書-』, 中  
 原文化研究叢書 第48冊,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忠州市.
- 車勇杰 外, 2005, 『清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查報告書』, 中原文化研究叢書 第49  
 冊, 忠北大學校·清原郡.
- 崔仁善·李順堯, 2005, 『光陽 馬老山城Ⅰ-建物址-』, 光陽市·順天大學校 博物館.
- 崔仁宣 외, 2003, 『麗水 鼓樂山城Ⅰ』, 順天大博物館 地方文化叢書 第44, 順天大學  
 校 博物館·麗水市.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  
 \_\_\_\_\_, 2004, 『咸安 城山山城 Ⅱ』.  
 \_\_\_\_\_, 2006, 『咸安 城山山城 Ⅲ』.

- 木浦大學校 博物館·靈巖郡, 1996, 『靈巖 月出山祭祀遺蹟』, 木浦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第39冊.
- 國立扶餘博物館·大田地方國土管理廳, 2007, 『扶餘 論峙 祭祀遺蹟 - 扶餘九龍迂  
廻道路事業區間內』,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查報告書 第12冊.
- 鄭義道·安城賢, 2005, 『南海 大局山城 -南門址 및 蓮池-』, 學術調查研究叢書 第  
34輯, 南海郡·慶南文化財研究院.

Abstract

## A Study on the Fortress Wall as Ritual ceremony Priest

Jung, Eui Do

Mountains and Streams (Sancheon) are the crucial venues for the spiritual ceremony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Unified Silla Period. Younggo(迎鼓) from the volume of Buyeo in *Biography of Dongyei of Chronicle of Huhan* and Dongmaeng(東盟) of Goguryeo are the ritual ceremony for the heaven and one of the customs in Ye(滅), they valued mountains and streams the most. Then, it is not too much to discuss that mountains and streams in Korean traditions are the main gists of all contentions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Joseon Period.

However, it must be distinguished that the ceremony is not for the mountains or streams but rather for the safe guard god which is believed to be existed in those venues. The researches which are based on those literatures such as *Chronicles of the Three Kindoms*, *History of Goryeo*, and *A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New Topography of Joseon*, it has been proved that the venues of mountains and streams are carrying the meaning of national borders, or regional defense areas, and even ritual place for the ceremony, dedicated to the ancestors of a community. In addition, Jinsan (the mountain where the safeguard god for the community live) seems to have a pivotal relation to the prosperous religion which initiated from Proto Three Kingdoms Period to Goryeo Period. There are amounts of similar examples that share the same distance and location with the Jinsan. And also people who lived in the fortress used to set their ancestors as the god of the prosperity and this means that those people wanted to have total obedience from the regional

communities.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Jinsan illustrates regional influence and powers that which controls where.

As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s, there are amounts of archaeological clues which support those venues are dedicated for the spiritual ceremonies such as Iseong, Selbong, Banwol, Buso, Gong, Gyejok, Hwawang fortress. The mountains where contain the ceremony venues of these fortifications have been recorded as a Jinsan in *New Topography of Joseon*, although this Topography is a record of a Joseon Period. Additionally the direction of the Seonghwangsa Temple is the in the same line with those Jinsan. As of the historical records for the fortress, in addition,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all discarded before the Joseon Period.

Therefore, the ritual venues for the ceremony in Jinsan of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s are the results of the 'ceremony for the mountains and streams' and 'ceremony for the four gates in Silla' according to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Not only held the ceremony for defeating the enemies but also were diverse public events organized in the fortress. So it is in a way inevitable to find the relics of the ceremony in these fortress. Particularly, the researches regarding those fortress in Jinsan or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re useful to defin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of those certain fortress.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remained. First of all, it is hard to detect the purpose of the ceremony according to the relic in each case. In the circumstances of less records evidences, it must be hard to find not only the purpose of the ceremony but also which artefacts have been posed for what objectives.

It seems to be required further researches on this areas. Not only the main fortress walls but also the gate and inside part should have put more light on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is definitely related to the entire research about hollow type relics (堅穴遺構). In the mean time, when the relics of ceremony event have been found in the near future which is clear evidence of the ceremony during the excavation, multiple

investigations regarding the purpose, location and type of the relic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Fortress, Jinsan (the mountain where the safeguard god for the community live), ceremony for Mountains and Streams, God of the prosperity, Ritual ceremony for rain, Ritual ceremony Priest